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A STUDY ON CHRISTIAN FAITH EDUC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KOREA**

written by

Sunok Pa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Timothy Kiho Park, PhD

Date March 2019

**A STUDY ON CHRISTIAN FAITH EDUC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KOREA**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울산 비둘기 유치원을 중심으로

By

Sunok Pak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March 2019

ABSTRACT

Pak, Sunok
2019

“A Study on Christian Faith Educ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Kore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48 p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rategy for Christian faith education of children at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 have tried to answer to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ly,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education in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Korea?

Secondly, what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children?

Thirdly, what i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children?

Fourthly, what is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children?

Fifthly, what is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children?

Upon the completion of this study, I suggest two things to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and also to other Christian educational institutions founded for faith education for children in Korea

First, establish professional institute like ‘Sunkyowon’ (mission center) as a part of weekly church program for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childre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Basic Education Act, and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restrict Christian education in kindergartens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However, Sunday School education in the church is protected by religious law of the government and it can be extended to a weekly program.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intends to exit from the government control and return to a 'Sunkyowon'.

Second, suggest the parents of the children of the ‘Sunkyowon’ to play together the educator role. Both the teachers of ‘Sunkyowon’ and the parents of children at home must work together for faith education to children. It is expected that the efficiency of education can maximize and it can be an opportunity for the parents to hear the gospel and whole family could be saved.

This study consists of 9 chapters. The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The background, the purpose, the central research issue, the research questions, the delimitation, the research methods, and the research overview are described in the introduction.

In Chapter 2, I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faith education for children in Bidulgi Kindergarten. I first described the general status of Ulsan, Korea, where Bidulgi Kindergarten is located

Chapter 3 describe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faith education to children both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Chapter 4 describe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the faith education for children for the fulfillment of call of the kingdom of God.

Chapter 5 is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children. It focuses on the history of Korean Sunday Schools and Bible schools of the early Western missionaries in Korea.

Chapter 6 describes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Christian faith education in the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the Bidulgi Kindergarten.

Chapter 7 analyzes and evaluates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Korean society, the Korean church and Christian faith education in Bidulgi Kindergarten.

Chapter 8 suggests a strategy for the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the children at Bidulgi Kindergarten.

Chapter 9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t summarizes the findings and mak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개요(ABSTRACT)

박순옥

2019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울산 비둘기 유치원을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48 pp.

본 연구의 목적은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첫째,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넷째,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은 어떠한가?

다섯째,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상황적 관점은 무엇인가?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비둘기 유치원은 물론이며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많은 유아 교육기관이 기독교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어린이 선교원’ 설립을 제안 한다.

한국 정부의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는 관인 유치원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교육은 종교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일에도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점을 적용하여 주일학교 교육을 평일까지 연장하는 ‘어린이 선교원’ 설립을 제안한다.

비둘기 유치원은 인가증을 국가에 반납하고 ‘어린이 선교원’으로 전향 하고자 한다.

둘째 ‘어린이 선교원’의 학부모들에게 ‘부모 역할 교육’을 제안한다.

선교원 학부모들에게 ‘부모 역할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연계 되어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 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가족단위 복음 사역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9장으로 구성 된다.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목표, 핵심연구과제, 연구질문,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구개관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는 비둘기 유치원의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현황으로 먼저 비둘기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울산의 일반적인 현황을 기술하고 이어서 비둘기 유치원 기독교 교육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관점을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 으로 살펴보고 기술하였다.

제4장에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을 하나님 나라 임재와 제자도의 소명 완성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제5장에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고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 역사와 성경학교 태동의 역사 그리고 한국 초기 서구 선교사들의 교육선교 역사를 기술하였다.

제6장에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상황적 관점을 한국사회의 제도적 측면과 비둘기 유치원의 상황적 관점을 기술하였다.

제7장에는 기독교 신앙 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에 있어서 한국 사회적 현황과 한국 교회적 현황과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 현황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제8장에는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기독교교육 전문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 선교원’ 설립과 선교원 학부모들의 ‘부모 역할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연계 되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제안하였다.

제9장에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를 마쳤다.

헌정(DEDICATION)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기를 소망하며 이 논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온데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강림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논문 지도 해주신 박기호 교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i
목차(TABLE OF CONTENTS).....	vi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i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ii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1
연구 목적	2
연구 목표	3
핵심 연구 과제	3
연구 질문	3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개관	4
제 2 장 비둘기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의 현황.....	5
울산의 일반적 현황	5
울산의 지리적 위치	5
울산의 사회 문화적 특징	6
울산의 종교적 특징	6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현황.....	7
비둘기 유치원의 역사	7
신학적 입장	7
교육 철학	8
비둘기 유치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방법.....	8
비둘기 유치원의 신앙교육 현황.....	9
요약 및 선교적 함의	11
제 3 장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성경적 관점.....	12

어린이 신앙 교육에 관한 구약의 성경의 관점.....	12
모세오경의 관점	12
역사서의 관점	15
시가서의 관점	17
선지서의 관점	19
어린이 신앙교육에 관한 신약성경의 관점.....	21
복음서의 관점	21
사도행전의 관점	24
서신서의 관점	25
바울 서신서의 관점	25
공동 서신서의 관점	26
요한 계시록의 관점	28
요약 및 선교적 함의	28
제 4 장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선교학적 관점.....	30
하나님 나라 임재(Restoration)와 어린이 신앙 교육.....	30
제자도의 소명과 어린이 신앙 교육.....	32
어린이 기독교 교육과 씨 뿌리는 선교.....	34
요약 및 선교적 함의	38
제 5 장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역사적 관점.....	40
한국 교회 기독교 교육의 역사.....	40
주일학교 부흥 역사	40
연동교회 주일학교 운동(Sunday School).....	43
문준경 전도사의 주일학교	44
성경학교의 태동	47
하기 아동 성경학교	48
아동성경 구락부(Children's Bible Clubs).....	48
한국 초기 서구 선교사의 교육선교 역사.....	49
서양 선교사들의 교육기관 설립과 기독교 교육.....	49
기독교 신앙 교육과 근대 문명의 발달.....	54
요약 및 선교적 함의	57
제 6 장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상황적 관점.....	59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제도적 현황.....	59
헌법에 명시된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법규.....	59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법률.....	60
학생 인권조례에 명시된 기독교 교육 관련 규정.....	68
요약 및 선교적 함의	71
제 7 장 기독교 신앙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	73
한국사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	73
한국 교회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	76
어린이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의 부재.....	76
주일학교 예배의 말씀 부실	78

교사의 열심과 영성의 부재	79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현황 분석과 평가.....	81
기독교 교육과정 부재	82
부모역할의 부재	83
기독교 교육교사 부재	84
요약 및 선교적 함의	84
제 8 장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방안.....	86
어린이 선교원 설립	87
선교원 설립의 필요성	87
어린이 선교원 설립의 법적 근거와 설립 규정.....	88
어린이 선교원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	91
어린이 선교원의 기독교 교육 내용.....	91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 방침	92
어린이 선교원 교사의 자격	93
교사의 외적 자격	93
교사의 내적 자격	94
선교원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법.....	94
선교원 어린이 가정의 부모역할 강화.....	96
신앙지도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	97
대리권 자로서 부모역할	97
회복자로서 부모역할	98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역할	102
어린이 발달단계에 적합한 기독교 교육.....	106
태아기 발달특성과 신앙지도	108
영아기 (0세-3세) 발달특성과 신앙지도.....	110
유아기 발달특성과 신앙지도	111
어린이 발달 단계와 신앙지도	115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앙지도.....	119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지도	122
가정예배의 중요성	122
가정 예배의 원리	123
가정 예배의 효과	125
요약 및 선교적 함의	127
제 9 장 요약 및 결론.....	129
요약	129
제언	134
부록1	135
부록2	136
부록3	138

부록4	139
부록5	140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142
약력(VITA)	147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2018년도 비둘기 유치원 원아 및 학부모 종교 현황	10
<표 2> 최근 6년간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 기독교 교육 현황	11
<표 3> 전국 시도 교육감 인정 교육별 교과서 목록 2000년 - 2010년	61
<표 4>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교육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법적 근거	66
<표 5>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시도별 종교 교육 관련 조례 내용	68
<표 6>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아동수당 현황	96
<표 7>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요인	110
<표 8> 어린이와 하나님과 관계	115
<표 9> 연령별 발달 특성과 신앙 발달	118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그림 1> 대한 민국 인구 생태 변화 추이	74
<그림 2> 한국사회 출생률 현황	75
<그림 3> 의식구조 및 성격구조	112

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울산 비둘기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젊은 세대들의 성도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교육기관의 역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다음세대 기독교 신앙교육의 미래를 염려하게 한다. 기독교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실행해야 함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필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비둘기 유치원에서 일반적인 유아교육과정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필자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의 핵심 과제 그리고 연구 질문과 용어의 정의 및 연구방법과 연구개관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

필자는 인재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석사학위 공부를 하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아동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경성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자녀의 신앙 발달을 위한 부모상담 역할 연구” 논문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공을 살려서 대한민국 울산 시에서 관인 사립 ‘비둘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성대학교 신학과와 영남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약 7년 가까이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평소 전공하고 임상 실험 된 어린이 교육과 기독교 신앙의 접목은 필자로서는 흡족한 기독교 교육의 강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통합측 교단 대구노회와 안동노회가 주최하는 교회 사역자들 세미나에서 어린이기독교 교육강의를 하였으며, 여러 교회에 초청강사로 ‘성경적 자녀 교육’ 특강도 하였고, 한국 기독교 방송 CBS방송에서 라디오와 T.V.에 6개월 동안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하여 토크와 칼럼, 설교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청 초청강사로 강의를 할 때와 초등학교 부모교육을 할 때는 기독교 신앙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자녀 ‘인성교육’과

아동상담에 대한 ‘부모 역할’ 등을 강의했다. 또한 한국의 보건 복지부 위탁 울산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유아교육 관련 과목 전임교수를 9년 담당하면서 2,000명 가까운 보육교사를 양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승급교육과 원감 및 시설장 자격연수들을 맡아왔다. 그러나 항상 아쉬움에서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많은 보육교사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일을 하였지만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기회를 마음껏 가질 수 없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심정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교육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절감하는 현실은, 인터넷과 게임기 그리고 휴대폰 등과 같은 미디어 문화에 젖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새로운 세대로 인식될 뿐 아니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매우 다른 그룹으로 보아 지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제도적 특성상 공부와 입시위주의 자녀양육으로, 어린이들을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문제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도 불모지로서 타 문화권에 있는 선교지대 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 교육을 선교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장래의 역군이 될 어린이 사역보다 성인 위주의 사역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세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부모들에게 자녀의 영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인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유아) 기독교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효율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적 요인을, 본인이 전공하고 사역한 현장성과 학문적 접근으로 연구하여 다음세대 기독교 신앙 교육의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비둘기 유치원 부모들에게 분명한 기독교적 자녀양육을 지향하게 하고, 어린이 사역자들이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의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신앙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 현황을 이해한다.

둘째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성경적 관점을 이해한다.

셋째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을 이해한다.

넷째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역사적 관점을 이해한다.

다섯째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상황적 관점을 이해한다.

핵심 연구 과제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비둘기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성경적, 선교학적, 역사적, 그리고 상황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

1. 비둘기 유치원에서의 기독교신앙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2.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3.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은 어떠한가?
4.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역사적 관점은 어떠한가?
5.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상황적 관점은 어떠한가?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하여 성경적, 선교학적, 역사적, 상황적 관점으로 한정한다. 대상은 비둘기 유치원 원아들로 정한다.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역사적 관점은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에 제한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문헌연구는 풀러 신학교 알란 하바드 도서관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서 이루어지며, 현장조사는 한국의 울산 비둘기 유치원에서 참여관찰로 이루어진다.

연구 개관

본 연구는 모두 9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비둘기 유치원의 소재지 대한민국 울산의 일반적인 현황과 사회문화적, 종교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 현황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여 어린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을 연구하여, 해외 선교에 앞서 고국의 다음세대가 특별한 문화권의 선교대상인 것을 인지하여, 어린이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최고의 선교사역인 것을 논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초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교회부흥 역사와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에 대한 선조들의 열정과 희생을 살펴보고 한국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회복을 바라며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역사적 관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제도적 현황을 바탕으로 비둘기 유치원과 한국교회에서의 어린이 신앙교육의 상황적 관점을 기술하여, 극복하여야 할 한계점과, 상황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기독교 신앙 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에 있어서 한국 사회적 현황과 한국 교회적 현황과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 현황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어린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9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선교적 함의를 논하며, 추후 연구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 2 장

비둘기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의 현황

본 장에서 필자는 대한민국 울산시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울산의 일반적 현황으로 지리적 위치 그리고 사회, 문화적 특성과 종교적 현황을 다루고 이어서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 현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울산의 일반적 현황

비둘기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울산 광역시의 일반적 현황이라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와 사회 문화적 특성과 종교적 현황을 살펴보고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울산의 지리적 위치

경상남도 동북부에 남동부해안을 중심으로 발달된 항구 도시 울산은 농어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광역시이며, 태화강이 도시를 남북으로 가로 지르고 동해안으로 흐르고 있다.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 항이 있으며 온산항과 맞물려 있는 장생포항에서는 일찍부터 고래잡이 포경업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북쪽 해안으로는 경주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남쪽 해안으로는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이어주고 있는 지리적 상황이다

울산은 항구 도시로서 동해안의 수심이 깊어서 서해안과 달리 밀물과 썰물의 조석현상이 심하지 않아서 물류 수송이 용이하여 수출과 수입 등 무역업에 도움이 되고 공장 설립상의 입지 조건이 전국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1960년대 초에 국가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울산 특정 공업 지구’로 지정되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금속 공업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으며, 석유 화학공업이 발달되어 한국 석유공사 에너지 관리 공단 외에 다수의 공단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라고 불린다. 2012년 울산은 대한 민국 총 수출의 17.7%를 차지하였으며 산업

발달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도시인구 약 110만 중 현대가족이 30만을 넘는 다고 한다.

울산의 사회 문화적 특징

울산은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산업체 즉 국가 기간 산업체와 대기업의 조력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로 산업 공단을 이루고 있으므로 공기의 질이 나빠져서 지역민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때도 있었지만 역대 도시 숙원 사업으로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기업들의 협조로 도시공원 조성이 잘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지금은 예전과 달리 맑은 공기와 청정 해안을 이루고 있다.

각종 산업의 발달로 대기업을 조력하는 하청업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며 그로인한 다문화 가정이 많은 편이다. 도시민의 대부분이 타지에서 유입 된 인구가 더 많은 편이므로 노동자들로 구성된 울산 도시민들은 젊은 세대 인구가 많고, 일인당 소득 수준이 전국 2위이며, 소비성향이 높고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다. 또한 기업마다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활성화되고 강성 노조의 활동도 볼 수 있으며 학부형 들의 기질이 노조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다. 한편 세계에 기술을 자랑하는 다수의 공장들은 유치되어 있지만 교육과 문화 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종합 대학 1개와 전문대학 1개였으며, 2009년에 설립된 UNIST(울산과학기술원: 대학과정) 1개가 전부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부산 대구 서울등 타지역의 대학교에 원정을 갈 수밖에 없다.

울산의 종교적 특징

울산은 원래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촌이므로 유난히 샤머니즘 적인 민심이 농후 하고 무속인의 활동이 많은 도시였다. 지리적 여건 또한 위쪽은 토암산 줄기에 맞물려서 석굴암과 불국사가 30Km이내에 있으며, 아래로는 통도사와 내원사, 문수사와 같은 국내 굴지의 유서 깊은 사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울산은 불교문화에 익숙한 도시이며 울산의 KTX 역사는 ‘통도사 울산역’ 이라고 명명한다. 이뿐만아니라 울산의 향토 축제를 ‘처용 문화제’라고 이름하는 등 불교와 샤머니즘적 정서가 도시민의 내면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현황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 현황을 기술함에 있어서 비둘기 유치원의 간략한 역사, 교육철학, 교육방법, 그리고 기독교 교육 현황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비둘기 유치원의 약사

비둘기유치원은 1983년 3월 1일 ‘한국 어린이 선교원 총회’에 설립 승인을 받아서 울산시 반구동 소재,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 소속 울산 동부교회 교육관에서 교회부설 ‘동부 어린이 선교원’으로 개원하였다. 개원 당시에는 정원 30명으로 1학급이었으나 1985년에 120명의 어린이로 4학급으로 증설하여 울산 최대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 전문 유아교육 기관이 되었다. 하지만 1988년 교회의 사정으로 교육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선교원을 폐원하고 그 해 8월 30일 부지를 임대하여, 교사를 신축하고, 울산 교육청 인가를 받아서 120명 4학급으로 비둘기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7년후에 1994년 5월 신도시로 개발되는 호계 지역의 현재 위치에 대지를 매입하고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당시 허허 벌판 이었던 현 위치는 2018년 도시개발로 아파트 대 단지가 들어섰고 순환도로가 건설되어 도심이 되었다.

신학적 입장

비둘기 유치원의 전신은 대한민국 울산시 동부교회 부설 ‘동부 어린이 선교원’이었다. 선교원에서 관인 유치원으로 전향한 후에도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한 동안 계속 이어졌으며 당시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입장은 ‘정통신학(Orthodox Theology)’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죄와 용서를 가르치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바르게 증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교과 과정은 성경 중심이었으며,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을 갖게 하고,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화를 기대하며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성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가르쳤다.

교육 철학

비둘기 유치원의 교육철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둘기 유치원 원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완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1988년 8월 30일 유치원 인가를 받을 당시에 성령의 비둘기를 생각하며, 비둘기 유치원으로 명명하였으며, 어린이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받은 은사로 생각하였다. 또한 ‘내 어린양을 먹이라’ 고 하신 요한복음 21장15절 말씀을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며 어린이 복음전도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의 장이 될 것을 기도하며 시작하였다.

비둘기 유치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방법

비둘기 유치원의 설립 목적은 ‘동부 어린이 선교원’의 연장이었으므로 어린이 복음사역이었다.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 할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날마다 어린이 찬송가를 배웠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손유희로 익히며, 암송대회를 열어서 성경암송을 강화하였다. 어린이들의 영성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어린이가 되는 것 같았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인지하여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아빠의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고 걱정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앓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모든 행사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시작과 끝을 맺는 것이 필수였다.

당시 동부 선교원의 모든 교육과정은 어린이 주일학교가 평일까지 연장된 교회학교로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손색이 없었다. 이러한 운영방침은 비둘기 유치원으로 전향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교육과정은 대한 민국 기본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그 외 어린이 찬송가를 가르쳤고 수업 중에 기도를 가르치고 예수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민 애국 조례 대신, 종종 예배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교사채용 또한 기독교인을 채용했으며, 유치원 근처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일주에 한 시간씩 성경 공부도 하였으며, 교사 기도회 시간은 필수적이었다.

비둘기유치원의 설립 목적인 어린이 복음 전도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들의 신앙적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봉사를 강요 하였으며, 십일조 생활을 지도하였으며, 교사들 에게 비둘기 유치원의 설립 목적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주지 시켰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였으며, 원장은 교사이며 전도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한 교사들과 함께 단합 대회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어린이 전도 사역을 다짐했으며, 여름에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농촌 교회 봉사를 가는 등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은 유치원 안팎으로 어린이 전도에 몰두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은 학부모의 결실은 많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부모가 없이 자라는 조손 가정의 아이들과 한 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부모가 되어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잡부금을 일절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과정의 우수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그리스도인(Christian)으로 칭찬을 들으며, 교육의 질을 인정 받아서 원아 모집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장 직을 맡고 있었던 본 연구자는 비둘기 유치원에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다.

비둘기 유치원의 신앙교육 현황

한국의 울산은 산업 수도라 할 만큼 국가 기간 산업체가 많았으며, 강성 노조 또한 활성화되는 도시이므로, 학부형들이 노조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의 여파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하여서도 강성 노조의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교회 부설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이므로 학부모의 종교 성향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부모의 수적 비율이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반발과 함께 관계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비둘기 유치원 원아 가족의 종교 분포와 비율은 <표 4>와 같다.

<표 1>

2018년도 비둘기 유치원 원아 및 학부모 종교 현황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	원불교	통일교	기타	무교
인원(명)	21	33	9	0	3	7	58
비율(%)	16	25	6.9	0	2.3	5.3	44

처음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밀고 나갔지만, 해가 거듭 될수록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특정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하는 법적 논쟁까지 거론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교육비를 모두 환불하라고 원장에게 옥박 지르기도 하였고,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과 상충되면서 신학기가 되면 신입 원아 모집이 어려워졌으며, 유치원에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점점 힘을 잃어 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에게서도 기독교 교육을 강요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어, 교사들의 종교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내세우는 교사들이 속출하면서, 교사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예배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에 들어와서는 수업 시간에 거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실에 봉착 하게 되었으며, 비둘기 유치원에서는 어렵게 회복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처음에는 방과후 과정의 어린이들 전원에게 실시했지만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반발이 시작되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였으나, 이후에 계속 되는 교육청의 지도 감독으로 인하여 그것마저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6년간의 비둘기 유치원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안타까운 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2>

최근 6년간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 기독교 교육 현황

내용 년도	기독교교육 내용	시간	인원	비고
2012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주1회 60분	약 110명	방과후 전원
2013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주1회 60분	약 110명	방과후 전원
2014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주1회 60분	약 110명	방과후 전원
2015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주1회 60분	약 60명	희망자
2016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주1회 30분	약 60명	희망자
2017-2018	무	0	0	0

요약 및 선교적 함의

대한민국 남동해안에 위치한 조그만 어촌이었던 울산이 특정 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기간 산업체와 대기업의 본사가 유치되어, 전국 각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토적 민심보다는 노동자들의 노조원 특유의 정서가 만연한 도시에 설립된 비둘기 유치원 기독교 교육은 학부모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유치원으로 전향하기 전에는 교회 부설이었으므로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신 입학을 하였으며, 학기 도중 교육과정 운영도 매일 예배와 성경 동화를 통한 신앙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관계 관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어린이들의 전학사태가 빚어 지면서 더 이상 기독교 교육 과정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비둘기 유치원의 설립목적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선교 신학적 입장으로 볼 때에 어린이 선교의 길이 막힌 것이며 사실상 기독교 교육이 중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성경적 관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필자는 어린이 신앙교육의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구약의 관점을 기술하고 이어서 신약의 관점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어린이 신앙 교육에 관한 구약의 성경의 관점

어린이 신앙교육의 관점에 관한 구약의 관점을 논함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관점, 역사서의 관점, 시가서의 관점, 그리고 선지서의 관점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모세오경의 관점

모세 오경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책이다(이병은 2016, 32).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교과서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언약 백성들의 권리와 책임에 걸 맞는 윤리적 표준과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세오경에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을 고든과 더글라스는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 규정”(Fee and Stuart 2009, 195)이라고 하였으며 단 맥카트니, 찰스 클레이튼은 “율법은 윤리적 표준에 대한 진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그분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야기의 일부이다”(맥카트니와 클레이튼 2000, 259)라고 했다. 고든 웬함은 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첫 다섯 책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둘 다를 위한 신앙의 근간이 된다(웬함 2013,17)라고 주장하며 모세오경이 신앙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증언한다.

출애굽기에서 가르치시는 신앙의 기초원리는 선택된 백성들과 언약 체결의 과정을 알게 한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여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셨다. 레위기에서 교육하시는 신앙의 기초 원리는 언약체결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법을 제사와 규례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그들의 다섯 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사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죄를 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또한 정결규례와 각종 절기의식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원리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고 성결 법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원리들에 대해서 다룬다 레위기에서 성도들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신명기의 교리는 구약의 토대로서 가르침을 상기했으며, 신명기의 분명하고도 명료한 요구들로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도전했다(브라운1997,13)고 한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성경 전체를 망라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오경의 어린이 기독교교육의 관점은 하나님의 절대명령이다. 모세오경의 신앙 교육의 내용과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즉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크게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언약과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 교육 내용이다. 또한 선택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부모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교육 대강령을 일러주셨다. 이러한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모세오경의 어린이 신앙교육은 가정이 전부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교육기관이나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세오경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교육의 시기적으로 조기교육을 말해준다. 유대의 어머니들은 태교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작하여, 아이가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 주실 언약의 복음을 철저히 주시시켜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길러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스라엘을 애굽 식민지에서 해방시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써 이집트의 학문과 화려한 궁중문화를 익히고 정치적으로 지도자 학습을 하며, 바로의 왕실에서 인생 전반기 40년을 지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때, 그의 영혼에 새겨 준 하나님의 형상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동안 익혀 왔던 교만과 호사스러웠던 악습에 대하여, 방패가 되어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요게벳의 신앙교육은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과 황실의 후계자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게 했다. 더욱 분명 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는 강한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구약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예의 아내로서 힘없고 신분이 보잘것없는 어머니였지만, 요게벳의 신앙 교육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해방 자로 성장하는 기묘한 과정에서 더욱 놀랍고 위대하심을 알 수 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남자 아이들의 출생에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악행을 벌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의 해방자를 바로의 궁정 안에서, 생모를 통하여 신앙 조기교육을 12살까지 받게 하였고, 바로와 함께 앉은 식탁의 음식을 먹게 하며, 성장시키시고, 누구보다 적을 깊이 알게 하는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모세오경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과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주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모세오경에는 기독교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잘못된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의 실수에 대하여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위험한 편애가 야곱을 광야로 내몰았고 받고싶은 복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일삼고 형제를 배반하는 우매하고 기형적인 신앙의 가르침과 야곱의 요셉에 대한 안타까운 편애가 형제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 사례를 통하여 바로 깨닫게 한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공부와 출세의 우상 앞으로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정욕을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사탄의 조롱을 말하고 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8:21)

아모리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아이를 산채로 불에 달구어서 몰렉의 팔에 올려 놓는 분향의 풍속을, 이스라엘사람 들이 따라 하는 행위를 보고, (왕하 16:3) 축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녀들을 공부의 우상, 물질의 우상, 문화, 최고, 출세의 우상 앞으로 이끌고 있는 오늘날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서의 관점

역사서에서 하나님은 언약백성들에게 발전적인 신앙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섭리에 순복하게 하시는 원리를 알게 한다. 역사가 룡맨은 “역사 책들과 이사야와 같은 선지서들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책들은 사실만 알리는 교과서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및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룡맨 III 1999, 155)라고 하면서 역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사사기는 죄의 정복이 실패할 때 신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에는 죄에 억매이는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은 제사장 또는 국왕이라도 언약의 주인 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으로 통치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신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이병은 2016, 62). 역대기는 왕정의 실패와 우상의 섬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회복하는 신앙발전의 원리를 보여준다. 또한 언약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의 증거는 죄를 떠나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교훈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에스라와 느헤미아는 포로가 되었던 언약 백성들이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재를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전 건축 도중 훼방꾼들의 방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심령에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며 언약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루고 신앙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알게 하는 것으로 본다.

에스더서는 이런 신앙상의 승리가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귀환하지 않은 포로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귀환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룬 모델로 에스더가 제시되는 것이다(이병은 2016, 68).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알게 하는 교훈이며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는 교훈이다. 역사서의 어린이 기독교교육의 관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서 승리하는 삶 즉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절대성을 알게 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될 것이며 과정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역대기의 내용을 통하여 신앙의 실패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으로서 발전하게 하는 교육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역사서는 어린이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에 성경을 조명하고 생활에 적용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의 역사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본다.

열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전하였다. 또한 잘못된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경계하심을 통하여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절대명령 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 제사장 엘리 가정의 신앙교육과 자녀교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엘리 제사장의 죄를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는 죄악으로 인함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던 죄를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불량자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지만 엘리는 “내 아들이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삼상 2:24)라고 하며, 소문을 듣고 아들들의 행실을 알 뿐, 직접적인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은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 저주를 맹세하셔서 그 책임을 물으셨다.

내가 그 집을 영영 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 하였 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삼상 3:12-14)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많은 유대의 부모들이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다. 또한 역사서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잘 받들어 실천한 우수한 사례로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기도를 알 수 있다. 그는 아들 사무엘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삼상 1:27-28)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삼상 3:19)

역사서에서 알 수 있는 어린이 신앙교육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서, 오늘날 죄와 타협하고 복음과 죄를 희석하는 삶을 자행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 혼란과 신앙의 무질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세대 어린이들의 신앙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독교 교육의 내용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가서의 관점

신학자들은 시가서를 지혜서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언약 백성들의 특별한 삶의 경험들을 다루고 있으며, 극도의 고난과 아픔, 처절하고 애잔한 삶의 정황에서의 찬양, 심각한 죄의 유혹,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 인간적 사랑의 위협과 한계 등을 시로 호소하고 시가서는 각각의 책들이 다루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병은 2016, 74)라고 증언한다. 또한 클라인은 “구약 지혜 문학의 기능은 언약을 해설하는 것이다. 지혜 문학이 이러한 일을 수행해 가는 한 가지 방법은 언약 약정들을 삶의 서로 다른 영역 속에서, 또한 삶의 다양한 상황들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격언 및 교훈으로 해석하여 씬으로 언약을 해설하는 것이다”(클라인 1994, 70)라고 한다. 성도들의 신앙적 심화를 위하여 시가서가 다루는 주제들과 그 원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욥기에서는 고난을 주제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으로 인정하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준다. 시편은 감사와 찬양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찬양과 감사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삶의 예배가 흥망성쇠의 열쇠이며 해답이라고 한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주제로 하여, 삶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

전도서는 허무를 주제로 참 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여 있을 때 얻을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의 결국은 허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을 알게 한다. 아가서는 사랑을 주제로 다루시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참 된 사랑을 가르친다. 하지만 인간적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다 우선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의 한계와 위험 수위는 인간의 우상화라는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봉사와 헌신 그리고 예배조차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죄에 대하여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복주의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이 상실된 시대를 염려하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기도와 찬양의 내용들을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다.

시가서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신앙의 깊이는 저절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긴 세월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온갖 고난과 유혹, 허무와 사랑 등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신자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는 것이다(이병은 2016, 96). 따라서 시가서의 기독교 교육의 관점은 지식의 근본을 교육하는 것이다. 시가서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신앙을 심화시키는 핵심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한 마디로 단언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식으로 명철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므로 시가서의 어린이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신뢰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시가서에서 하나님은 교회도 없었으며, 학교도 없었던 때에 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가 된 것을 확실히 인지시킨 후에 명령하셨으며 자녀들에게도 육신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복 할 것을 강권하셨다.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 이니라. (잠 1:8)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교육과 그렇지 못하고 자녀의 신앙교육의 무책임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다윗의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윗의 자녀교육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할 때에도 대화하지 않았으며, 훈계로 지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피를 보는 싸움을 하여도 무한정 너그럽기만 했기에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그는(아도니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 한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왕상 1:6)

시가서에 나타나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부모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부모의 자녀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청지기 역할을 충직하게 감당할 것을 알게 한다.

선지서의 관점

선지서는 신앙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책이다(이병은 2016, 98). 선지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국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에 돌입한 이후로 많은 역사적 사실을 형성한 뒤에 주어졌다. 이것은 신자들의 삶에서 많은 사건과 추억과 역사가 흘러도 끝까지 신앙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지서 각 권들이 보여주는 신앙 점검과 갱신의 원리들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앙을 다루는 이사야와 지적된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후 회개와 연단을 이루어 내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 이후의 회복을 다루는 다니엘서의 교훈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한다. 그리고 철저한 심판과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함으로 신자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종식시키려고 했다. 이것을 이사야는 저들이 언약을 맺고 신앙의 기초를 다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도, 심화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무지로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한다(2016, 107).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언약의 내면화는 신앙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신앙이 점검되지 않고 갱신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불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는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뽑고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힘든 소명을 감당하였지만 예레미야 31-33장은 장차 이들의 무지가 새 언약 안에서 극복될 것을 보여준다(2016, 109).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말씀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 33:3)

에스겔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포로 된 생활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갱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자기 백성의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사역하심을 알게 한다 이 사역의 주인은 성령과 성자라는 것을 명시한다(2016:110-11). 다니엘서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빚어진 심판 이후에 펼쳐질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는 책으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꿈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이다(2016, 111). 이것은 단순히 불신앙을 권면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권면을 보여 주신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에서 말라기서 끝까지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점검과 회복을 말한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 한데도 끊임없이 언약적 사랑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언약 백성의 고유한 지위와 신분 즉 자격을 상실하기까지 이르게 되지만 자기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교육 내용을 형성하셨다.

선지서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관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정체성 교육이라고 본다. 선지서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역사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요 한 번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언약 백성 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섬기는 법과 순종의 법을 알게 하는 신앙의 정체성 교육이라고 본다. 선지서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어린이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교육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생활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절대성을 인정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며 새롭게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끊임없이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함을 통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 신앙교육에 관한 신약성경의 관점

어린이 신앙교육의 관점에 관한 신약의 관점을 논함에 있어서 복음서의 관점, 사도행전의 관점, 서신서의 관점, 그리고 계시록의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복음서의 관점

복음서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다. 복음서의 신앙교육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신앙교육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사역으로 집약된다(정정숙 1997, 43). 예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종말론적 영역이었으므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내용과 행위를 결정지었다(장원철 2014, 3). 복음서는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고 노하시면서 어린이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 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 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 하시니라. (막 10:13-16; 눅 18:15)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당시 유대인의 인구 수에서 어린이 들은 제외되는 전통적 사상과는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시고, 아무리 작고 어린 영혼일찌라도 그들은, 축복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눅 9:37).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선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영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는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피 값을 치러야 할 소중한 존재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 고백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 보았던 것이다. 결코 어른보다 못하거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독립적인 신앙 인격체로 존중한 것을 알 수 있다.

C. B. Eavey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권능 으로 가르쳤으며. 그는 가르친 대로 살았고 가르치기 전에도 그것을 실천했다고 한다(Eavey 1986, 112). 또한 예수의 가르침은 고상함에 있어서나 성품의 거룩함에 있어서, 신앙적 관점으로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뿐 아니라, 이성적 관점으로 주님을 보던 합리주의자들과 회의론자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한다(1986:113). 이처럼 아무도 예수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없었던 것은,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원천적인 믿음의 메시지였으며, 영혼을 사랑하여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긴 가르침이었고, 권능의 설교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영규는 예수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교수법을 분명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생의 언약이었다고 아래와 같이 단언하였다.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예수만의 구체적인 언어(concrete language)였으며, 자신을 선포하는 전달 형식(transmission form)이었다. 또한 설교(preaching)는 예수님의 교육과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였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와 완성(fulfillment)이었다. (김영규 1996, 55)

예수님의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공인된 장소도 없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며, 목적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교훈, 대화, 논쟁 비유 등으로서 생활전체가 기독교 교육이었다(한국어린이선교총회 1984, 119).

예수님의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나라에 속하는 것 즉 구원이 목적이며, 둘째는 약함과 악습을 극복하고 강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인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다. 셋째 생활훈련이었다. 인간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제자 삼는 일이었다.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장원철 2014, 39) 이런 점을 중요시하여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마 28:19-20)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 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시 8:2)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마 18:10)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하여, 원수들 앞에서 어린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며, 결국 어린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로서 권능을 세워야 할 대상이며, 교육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적용하신 어린이의 신앙교육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보여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 교육방법을 증명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 중 가장 쉽고, 큰 예로는 오병이어 역사이다. 베세다의 들판에서 어린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혼과 모든 소유를 거룩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신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신앙 교육이 되었다. 당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현장 학습이 되었을 것이다.

치유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막 5:43).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 셧으며(요 4:46-54), 귀가 먹고 병어리 되고, 불과 물에 뛰어드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셨다(마 9:24-25; 막 7:24-30). 마가복음 1:32-34에는 병든 자와 앓는 자와 간질 병자를 데리고 온 것을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무리 중에는 어린이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과 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셨다(박순옥 2012, 97).

삭개오의 이웃이 되어 준 예수님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죄인의 친구가 되고, 외로운 왕따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교훈을 주었으며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깨워야 할 영혼으로 보셨으며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신앙교육은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교수법을 적용하신 것이다.

어린이의 순수성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여도 반응이 없을 수 있는 성품이며, 스스로 선행을 할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의존적인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어린이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권능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본다. 또한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의 현실적 고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영혼 구원과 유대민족의 현실적 문제에서 궁극적 해방을 추구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이었으며, 그것은 당대를 초월하여 유대민족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또한 당신의 재림 날까지를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의 교육이었다.

사도행전의 관점

사도행전은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리를 기독교 교육 내용으로 사용하셨다. 사도행전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최고의 복음 사역이라는 관점과 육신의 삶을 초월하는 영성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사도들은 구약의 교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는 무리에게 강력히 증거하였으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교, 그리고 초대 교회 성도들의 교회생활의 본질적 요소로서 전수된 신앙 교육을 통틀어 사도행전의 기독교 신앙교육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독교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로마제국의 식민지 형태였다 경제적인 억압은 물론이며 로마정부에 절대적 충성을 요구받고 있던 시기였기에 종교의 자유가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와 신앙의 격동기로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로마제국이나 하는 두 주인을 섬겨야 하는

정치적 신앙적 갈등은 물론이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경제적인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유대사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로마의 주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해방을 기도하였으며 여기서 메시아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장원철 2014, 38).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교육도 아니었고 로마 정부를 압도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은 더욱 아니었으며, 군사적 무력화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 개혁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상적 인권이나 사회질서의 회복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자와 병든 자의 이웃이었고 약한 자의 부형이었으며,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나라 선포로, 영원한 진리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가르침이었다.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중요한 신앙적 과제였다.

당시 유대민족의 갈등과 혼란은 고통의 수준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이 그들의 희망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기사와 이적은 있었지만 유대 민족의 현실적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보고, 오신 메시아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여 한때는 제자 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을 한 것이다. “오실 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리까”(눅 7:9) 하였던 것을 보아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그리고 목숨바쳐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을 알게 하고 사모할 것을 가르친다.

서신서의 관점

서신서의 관점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바울 서신서의 관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불신과 불순종 으로는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이며 신앙발전의 저해요소가 됨을 가르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스 네 편외 옥중서신과 데살로니가 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할 것을 가르친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 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 같은 목회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발전의 저해됨을 가르친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온 것은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하여야 할 규칙, 의무, 자격 그리고 물질에 관련된 다양한 교훈들을 일러주었고 특히 디모데에게는 후서에서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임무등에 대해서 소상히 권면한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기독교 교육은 개인의 신앙 발전과 교회 공동체의 참된 교회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공동체와 개인은 신앙 발전에 저해를 받는 원리를 인지하고 실제 교회생활과 운영에 반영할 것을 가르친다.

공동서신서의 관점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요한서와 유다서이며 초대교회 시대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앙의 깊이와 심화를 이루게 하는 책이다. 특히 요한 서신과 유다서는 이단의 유혹을 극복함으로 신앙의 심화를 이루게 한다. 요한 서신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이 최고의 실천적 사랑임을 강조하고 거짓교사들을 배척하고 사도의 교훈을 순수하게 지키며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신앙의 심화 교육이라고 본다.

공동서신서의 기독교 교육의 관점은 많은 시련과 도전들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그리스도와 더욱 공고하게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가야 하는 것이다(이병은 2016, 174). 어린이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공동서신의 교훈을 붙잡는 삶을 가르쳐야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신서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관점은 제자도의 실천이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체험을 계기로 사도들의 사역과 가르침으로 복음사역이 활발하였고, 특별히 바울을 비롯하여 여러사도들의 공동체를 위한 서신 교육은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생활을 전수하는 것을 신앙교육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행적을 따라 회당에서 가르쳤고 교회를 개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자녀양육의 지침을 말해준다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또한 서신서에는 신앙교육의 모범적 가정의 실례로서 디모데의 가정을 들어 말씀하시고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과 가족의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칭찬하였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 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 하노라. (딤후 1:5)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딤후 3:15)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의 참된 믿음의 원천을 할머니와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가족의 신앙관 가치관 등의 중심사상은 자녀의 신앙발달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서신서의 디모데후서 2장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지침을 말해준다.

내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딤후 2:1-3)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신앙이 디모데와 같은 젊은 목회자를 양육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는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깨닫게 한다.

요한 계시록의 관점

성경의 가장 끝 자락에 위치한 요한의 계시록은 기독교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신앙의 점검과 완성의 단계로서 구약의 선지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신앙의 기초가 철저하게 완성되었는지 생각을 돌이켜 자신을 점검하고, 삶의 예배로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뿌리 깊은 신앙의 심화를 이루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회개와 갱신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교육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이 점검하고 지적하고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였으나 신약의 계시록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복으로 언약 관계가 완성됨을 알게 한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신앙점검으로 갱신과 회복을 위하여 하늘 보좌 환상과 세 개의 심판 이야기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의 신앙점검요소는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나를 완성시키며 천상의 신자로 빛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결코 중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과 경건 됨과 생활과 관계를 점검하여 회복과 갱신을 거듭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요한계시록의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의 관점은 어린이들에게 거룩한 모습과 경건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한번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예수님과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경건 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와 회복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할 것과, 충성된 신앙 생활로 견고히 서게 할 것과 오직 천국만을 소망케 하기 위하여 심판과 천국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요약 및 선교적 함의

본 장에서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의 성경적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은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살펴서,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중심 교육’의 비 성경적인 정체를 밝히고 ‘성경중심 어린이 교육’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구약에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었으며, 부모는 교사의 역할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보상과 책임을 확실히 정의하였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성스러운 경외심을 갖고 대하셨음에 틀림없다(호온 1999, 211).

예수께서는 어린영혼들에게 권능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므로, 어린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가르치고, 깨워야 할 영혼으로 보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신앙교육은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정의한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크다란 선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지구상의 선교 원조이신 예수그리스도는 가장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영혼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것은 어린아이 한 영혼에서 다음 세대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역사를 보신 것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눅 23:28)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에게 채찍과 조롱의 고통 중에도 피로 범벅 된 입술을 열어 어린이를 부탁하신 말씀이며,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관점은 지구상의 선교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선교학적 관점

본 장에서 필자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을 논하도록 하겠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어린이신앙교육에 관하여 논하고 이어서 제자도의 관점, 그리고 씨뿌리는 농사의 관점에서 어린이 신앙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에을 논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나라 임재(Restoration)와 어린이 신앙 교육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이며 마지막 부탁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이다. 이것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 28:20)으로 인지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선교적 사명으로 받들고 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 나라 선포는 선교이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선교의 본질은 말씀 선포와 함께 교육이 동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선교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기독교 선교는 어린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은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에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육 없는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게 되므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나라 회복을 위한 선교의 필수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복음주의 신학회 총무인 토군보 아테에모(Tokunboh Adeyemo)는 “아프리카는 인구의 1/3 이 신자라고 하지만 예수의 참 제자를 삼는 데는 실패했으며, 대부분의 개종자들이 복음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전효진 2001, 65). 이것은 선교대상인 아프리카인들에게 전도 즉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는 했지만 깨우쳐 주지는 못했으며, 복음에 대한 영성을 인지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에 교육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한 선교가 될 수 없으며, 자전과 자치 그리고 자립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실패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본다.

기독교 교육과 선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의 사역을 내포하며, 복음적 반응을 요구한다(박영호 2015, 23)고 한다. 이것은 어린이 기독교교육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교육과 분리해서 실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적 반응을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선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 명의 어린이에게서 수많은 선교의 결실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 기독교 교육이 세계선교를 위한 기초공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어린이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특별히 흥미로웠고 교회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다. 한국 초기 교회부흥 시대에 기독교 교육은 어린이들의 의식을 개화시켰고 선진 학문과 문명의 길잡이가 될 만큼 영향력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한국사회 어린이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 부모들도 교회 교육보다 사회적 우등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도 틈만 나면, 대화는 하지않고 핸드폰과 게임에 젖어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예배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이 필수이고, 가정에서는 컴퓨터 게임과 미디어에 노출 되어있으며, 교회의 가르침과 프로그램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편이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 역시 장년 위주의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 교육과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망각해 가고 있었고, 어린이들이 자라서 미래의 교회 지도자와 주인이 되며, 선교사가 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그 결과 한국의 소형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며, 한국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타 문화권의 선교대상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 만큼 교회 내에 다음세대의 성도수가 줄어들고 교회 성장이 되지 않는 작금에 와서는 다음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 사역자들의 왜곡된 기독교 교육의 개념과 선교적 기독교 교육이 부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분명 선교의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으며,

교회성장의 밑거름이요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세기의 유명한 목회자 크리소스 톰은 “화가보다 더 높은 예술가는 어린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사다” 라고 했으며, 요한 웨슬레도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 시대를 돌보지 않는 한 현재의 신앙 부흥은 우리 나이(60-70세) 밖에 더 지속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박영호 2015, 59). 이것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선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 함을 말해 준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이 부재 할 때 교회 부흥은 기대할 수 없으며, 어린 영혼을 변화시켜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최고의 선교로서, 예술 중에 지극히 높은 예술이라는 것이다. 양승헌은 “어린이 선교와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 형상의 구조인 육체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구조와 하나님 형상의 기능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사랑하는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001, 56-57). 그러므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세계선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도의 소명과 어린이 신앙 교육

성경은 가르치다(Teach)와 교사(Teacher)라는 단어가 250회나 나오며, 구약 성경에도 가르치는 기록이 수없이 많이 쓰여 있고, 예수님께서도 60회이상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록하였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선생님)라고 불렀다(리강무 1980, 58). 요한복음은 서두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선명하게 알려준다. 곧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주의를 폭로하여 예수그리스도 외에서 구원자가 없음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의 선행 됨을 중요한 메시지로 메시아의 특별한 기능 즉 생명의 떡(요 6:35), 세상의 빛(요 8:12), 양의 문(요 10:7, 9), 선한 목자(요 10:11)부활이요 생명(요11:25), 포도나무(요15:1),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 되심을 선포하여 인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도왔다(이병은 2016, 141).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으로,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임을 가르쳐 주셨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은 의식과 절차만 강조되고, 중심에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참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권능만을 바라는 삶의 예배를 가르치셨다(박순옥 2012, 97).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으며, 인간적인 기사나 교훈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능자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자극하였으므로 희대의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수방법은 그를 대적하던 관원들도 ‘이 사람과 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께서는 ‘내 어린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신앙교육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라고 본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사 60:22) 하신 말씀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어린이 교육과 양육을 부탁하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린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 즉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제자도의 실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교회에 출석만 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교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을지라도 어린이를 제자 삼는 일에 무관심 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단순히 형식적인 지식훈련이 아니라 복음적 (evangelistic)이어야 하며, 전도는 단순히 감정적, 회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교육적 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어린이 전도는 교육을 통해 제자화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박영호 2015, 23).

성경은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당하게 할 것이며,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쳐야 함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알게 한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12살 때 유월절에 성전에서 여러 교사들과 토론하신 일을 상고해 볼 때 당시 유대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유대인의 전통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심문을 받는 장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을 때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요 18:20) 라고 대답하셨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예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산에서도, 빈들에서도 가르치셨던 기록이 있고, 회당과 성전에서도 당당하게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 신앙교육은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신앙교육의 목적을 확실히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자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1:28). 라고 한 것 처럼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어린이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서, 겨자씨 한 알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결실을 보게 되는 선교가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제자 삼는 것이며, 예수그리스도가 분부하신 선교적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제자도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의 초창기 선교사역은 ‘교육선교’와 ‘의료선교’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선교의 결실은 오늘날 한국사회 기독교의 거대한 공헌으로 남아있다. 당시 1명으로 가르침을 시작한 이화 학당이 오늘날 이화여자 대학이 되었고, 연희와 세브란스도 크게 한몫을 하였으며, 성경 구락부가 지금의 중, 고등학교가 되었으며, 당시 코흘리개들의 주일학교가 오늘날 대형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교육선교의 결실이다(리강무 1980, 50).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제자화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과 씨 뿌리는 선교

어린이 전도는 ‘낚시’로 이해하기 보다는 파종과 결실이 있는 ‘농사’로 이해 해야 한다. (양승헌 2001, 39)고 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며, 양육은 기독교 신앙교육 과정의 실천으로서, 농사처럼 결실을 기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을 농사로 이해할 때 예수께서는 선교의 대상인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신 말씀을 적용하고자 한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의 4가지 마음 밭을 선교적 관점에서 그 대상과 연관하여 본다면, 길 밭은 노년의 마음 밭이라

할 수 있고, 가시받은 장년의 마음 받 그리고 돌받은 청년들의 마음 받이며, 옥토는 어린아이의 마음 받이라고 할 수 있다(리강무 1980, 45).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어린아이의 사고와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백지 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린이의 마음과 지능에 그려 넣는 대로 흡수 된다는 뜻이다. 1924년 미국의 심리학자 존 브로더스 왓슨(John Broadus Watson)은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달라 그러면 그들의 재능, 기호, 성향, 능력, 적성, 인종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전문가 의사, 변호사, 교사, 예술가, 상인, 대통령, 거지, 도둑 중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Watson 1930, 82)하면서 어린이의 백지와 같은 성품과 발달 특징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의 마음 받은 옥토와 같다 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는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봄’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을 씨 뿌리는 비유에 비추어 볼 때 파종시기는 봄이며, 옥토 받게 뿌리는 농사 기법으로 결실을 확신할 수 있는 선교의 대상과 선교의 적기를 붙잡는 것이라고 본다. 성서에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신앙교육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말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마 18:10)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 10:14)

누구든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살인 행위자다. (마 18:6)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 6:6)

마땅히 행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 22:6).

내 어린양을 먹이라. (요 21:15)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 18:14)

너는 네 아들과 손자에게 그 일을 알게 하라. (신 4:9-16)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이며, 천국에서 가장 큰자이다. (마 18:3-4)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 18:5)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큰 자로 높이셨고, 한 명이라도 잃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이며 용납하고 영접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르치라고 각별히 부탁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을 교회의 부수적인 기관 활동으로만 보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보다 준비되지 못하여 아직 신앙의 의지와 영성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어린이에게 복음을 심는 일을 간과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라이오넬 헌트의 저서 어린이 전도 교본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성인 그리스도인들의 86퍼센트가 15세가 되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10퍼센트만 13-15세 사이에 구원을 받았으며, 4퍼센트는 30세가 지나서 구원을 받는다”(어린이 전도협회 2006, 11)고 한다. 루이스 부쉬(Luis Bush)는 “그 어떤 연령대도 전도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크고 가장 수용적이고 형성 가능성이 있는 4세부터 14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쏟아야 할 것이다”(Bush 2014, 42-47) 라고 하면서 어린이의 복음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강조하였다. 김시 스미드(Gypsy Smith)는 “나이 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지만 한 아이를 구원하면 그 몇 배도 더 되는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Towns 1991, 79)라고 하며 어린이의 선교의 결실을 예측하고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토레이(R. A. Torrey)는 5-10세의 어린이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기가 가장 좋다고 말하고, 무디(D. L. Moody)는 어린이가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갈보리로 능히 갈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한다(양승헌 2001, 9).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사역자들의 회심도 어린 시절 기독교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해준다. 예를 들면, 진젠 도르프 백작은 4세, 빌리 그래함 목사는 5세, 메튜 헨리는 9세, 요나단 에드워드는 9세, 폴리캡은 9세, 무디는 10세, 스펠전은 11세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심한 것으로 전한다(전영인 1993, 27). 따라서 어린이의 신앙적 양육을 통하여 그들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교회와 부모들은 어린이 결신이 더욱 더 온전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양육을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김선일 2011, 277).

성경은 어린이의 영성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린아이의 입술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하게 하였으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 어린이도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할 수 있고 어린이도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며, 어린이도 성령의 기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도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특별히 높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성품으로나, 순진성으로나 정결 함으로나, 청, 장년 보다 신앙의 적격자이며, 양육의 대상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시종 일관 축복의 대상임을 말하였고, 어린아이들의 나아움을 성도되는 것으로 여기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복을 빌어 주셨다(리강무 1980, 48).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보이기까지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식들아’(요 8: 44) ‘독사의 자식들아’(마 12: 34) ‘회 칠한 무덤들’(마 23:27)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롬 3:13-15)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직접 높이시고 한 번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비유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할 수 있겠다.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그들의 마음 밭에 뿌리는 것은 청아한 봄날에, 최고의 옥토 밭에다 건강한 묘목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라고 하겠다. 카톨릭의 경우에는 개신교 목사님들처럼 신부들이 심방을 하거나 교회 자체 부흥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카톨릭 교세가 계속 확장되고 세계적으로도 교황의 위력이 대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만 7세 이전의 유아교육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 카톨릭은 그것을 위하여 성당마다 유치원을 설립하며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의 90%의 열정을 쏟아 붓는다고 하며, 어린이 신앙교육만이 전도의 대세라고 한다.

하지만 개신교 교단들은 교회 개척에만 관심을 고조시키고 어린이 신앙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장년들이 모여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묘목은 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꾸고 길러놓은 열매를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적기성 즉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에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만 7세 이전에 기독교 신앙 교육이 완성 될 수 있도록 각 교회와 부모들은 각성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 및 선교적 함의

예수께서는 시종 일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 하셨으며 이를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셨다. 따라서 선교를 위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선교의 수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큰 자로 높이셨고, 한 명이라도 잃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이며 용납하고 영접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르치라고 각별히 부탁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을 교회의 부수적인 기관 활동으로만 보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보다 준비되지 못하여 아직 신앙의 의지와 영성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어린이에게 복음을 심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에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육 없는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고, 복음을 깨닫게 해줄 수는 없으므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나라 회복을 위한 선교의 필수 과정으로서 선교와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위한 신앙 교육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으며 복음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 명의 어린이에게서 수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죄 성을 벗고 하나님나라 회복을 위한 역군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은 어린이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단순히 형식적인 지식훈련이 아니라 복음적(evangelistic)이어야 하며, 전도는 단순히 감정적, 회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교육적이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어린이 전도는 교육을 통해 제자화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박영호 2015, 23).

어린이 선교를 복음의 농사로 이해한다면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봄날에 옥토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며, 농사처럼 결실을 기대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많은 사역자들이 어릴 때 복음을 받아서 평생을 헌신하며, 영혼 구원 사역의 삶을 살아 간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 기독교교육은 선교의 수단이며, 제자도의 완성이며, 세계선교를 위하여 옥토 밭에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다.

제 5 장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역사적 관점

본 장에서 필자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역사적 관점을 논하도록 하되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중심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한국 교회 기독교 교육의 역사

한국 교회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논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주일학교 역사와 성경학교의 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일학교 부흥 역사

한국 교회 초기 주일학교는 서구 선교사들에 의하여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그 시작이었다. 서구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진 조선의 어린이와 여성들은 한없이 불쌍한 인생으로 동정심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소외계층에게 복음으로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선교가 주일 학교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인천항으로 들어온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는 1885년 부활 주일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들은 제일 먼저 문맹을 깨우쳐서 성경을 보급하기 원했으며, 복음의 재생산을 위하여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장 먼저 아펜젤라 선교사는 1885년 8월 3일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10월 16일 정신학교를 설립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 (장원철 2014, 139). 그러나 이것은 교육선교의 시작은 될 수 있으나 교회 밖에서 시작된 사회 사업적인 동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시작은 주일학교의 태동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는 1888년 1월 15일 미국 메어리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하여 서울 정동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12명의 어린이들을 모우고 성경을 가르친 것이

주일학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기반으로 1889년 평양에 6개처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다(2014, 140). 이로부터 5년 후 1894년 1월 평양에서 마포삼열(馬布三悅S Moffett) 선교사가 22명의 학습 반을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으며 이것이 확대되어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한국어린이 선교원 총회 1984, 43). 1900년에는 도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양성을 위하여, 평양 남산재 교회에서 노블부인(Mrs. Noble)이 사범반을 조직하여 교사를 양성하였고 1903년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1984, 44). 1905년에는 서구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선교연합 공의회’(Federal Council of Missions)안에 ‘주일학교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6년 후 1911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위원회에 들어가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장원철 2014, 140).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너무도 조용한 나라였다. 심지어 인도의 시인이자 학자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으며, 캐나다 선교사 암스트롱은 “한국은 백두산 천지 못과 같이 잔잔하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아무런 국제적 교류가 없었으며, 외부와 단절되어 변화와 발전의 의지 즉 몸부림조차 없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주일학교의 시작은 오늘날 한국의 교육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1908년 이후부터 1920년 사이에 서울에서 주일학교 대회를 가졌으며, 당시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실행부장인 하인즈가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제8회 세계 주일학교 대회를 전후로 하여 7차례에 걸쳐 세계 각국 주일 학교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우리나라 주일학교 사업에 커다란 자극과 격려가 되었다고 한다(2014, 140). 주일학교가 전국으로 확산 되어지고 발전함에 따라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 선교회 공회에서 ‘만국 주일공과’를 매월 월간지로 발행 했으며, 1913년에 더욱 내용을 정비하여 유년부 계단 공과가 발간되고 이후 초등부와 유치부 등 각 부서별 계단 공과도 편집하게 되었으며, 1919년부터 1920년까지는 ‘통일성경 보통공과’를 이어서 발행하였고, 1921년에는 ‘만국 통일공과’를 출판 하여 1940년까지 사용하였다(2014, 141).

그 동안 주일학교 교육과 교사를 위한 잡지로는 ‘주일학교’가 발간 되었으며, 1920년 1월에 ‘교회학교 교사’라는 잡지가 나와서 1930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2014, 141).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온 주일학교 운동 은 세계주일학교 연합회와 관련을

맺었고 1921년에는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직되었다(한국 어린이 선교원 총회 1984, 44).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는 1928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세계 주일학교 대회에 대표들을 파송하여, 조선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26만이라고 보고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1984, 44).

또한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는 전국주일학교 대회는 물론이며, 주일학교 통신(1923) 주일학교잡지(1925), 아이생활(1926) 주일학교 신보(1929) 종교 교육(1930) SS연합회보(1933) 등 출판물을 통하여 주일학교 선교와, 교육 운영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1930년 한국교회 주일 학교는 전국에 5,000개에 250,000명의 어린이 성도가 되었다(“교회 밖 교회,” 2018.05.06) 조선에 개척된 주일학교는 1897년, 15개, 1898년, 28개로 성장하였고. 주일학교 학생수는 1893년, 133명에서 1896년, 512명, 1898년, 1,402명으로 부흥 성장하였다. 1900년에 주일학교를 시작한 남 감리교는 서울과 송도에 각 1개씩 2개로 시작하여 1905년, 34개, 1918년, 138개, 1930년, 359개로 성장하였다(장원철 2014, 141).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이 기반이 되어 시작된 한국의 주일학교는 초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갔으며, 오늘날 선교대국으로서 인재 양성을 위한 텃밭으로 제 몫을 충분히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39년 6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선교사 추방 정책으로 많은 미국 선교사들의 귀국으로, 한국 주일학교는 급속도로 침체기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 해방을 기점으로 한국의 주일 학교는 다시 재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자유로운 주일학교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남북이 양단 되는 국가적 운명 앞에서, 북한의 주일학교는 역사를 되새겨 보는 것은 고사하고, 존재를 상실한 것으로 알며,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초기 주일학교의 발전에는 불신 부모들이 한몫을 하였다.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교회에 가면 현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초기 주일학교 교육이 유교와 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 자신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교육이라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불신 부모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 후 교회의 부흥과 연합회의 활동의 활성화로 각종 주일학교 대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교사 양성과 공과편찬 등

주일학교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조선의 주일학교는 나날이 발전하고 부흥하여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주일학교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38년 6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게 되고 4년마다 열리던 주일학교 대회도 중단되었으며,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도 해체되었다(한국 어린이 선교원 총회 1984, 44) 따라서 당시 교회가 폐쇄되고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목회자들의 순교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광복이 되기까지 한국의 주일학교는 수난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린이 신앙교육의 산실이 되어온 연동교회 주일학교와 서해안 다도해 오지에서 훌륭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한 문준경 전도사의 주일학교역사를 되새겨 보고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훌륭한 역사적 본보기를 찾고자 한다.

연동교회 주일학교 운동(Sunday School)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한국 주일 학교의 효시는 1907년, 서울 연동교회에서 조직한 ‘연동 소아회’이며, 국내 최초의 장로교 주일학교이다. 당시 캐나다 출신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 연동교회 초대 담임목사) 선교사와 김종상 장로가 주축이 되어 1907년 5월 5일 ‘소아회 (小兒會)’ 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게일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연동교회 소아회 창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고 한다(“국내 첫 장로교 주일학교 연동교회 ‘소아회,’” 2007.05.04).

처음에는 아이들이 예배당을 더럽히고 시끄럽게 한다고 소아회 창립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예배당 뜰에 놀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몰래 숨어서 들어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한다(“국내 첫 장로교 주일학교 연동교회 ‘소아회,’” 2007.05.04). 하지만 성도들은 어린이 신앙교육이 건강한 교회설립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어린이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1914년, 921명이 참석할 정도로 크게 부흥하였다. 또한 소아회 어린이들은 자체적으로 전도대를 만들어서 주일 오후에는 스스로 흠어져서 전도를 하였으며, 소아회 교사들은 부모전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하였고 이러한 성장에 자극을 받은 평양 장대현 교회, 남산현 교회, 선천북 교회, 전주 서문 교회 등이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각 교회 에는 주일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주일학교 운동,” 2018.03.13). 연동 교회 ‘소아회가 효시가 되어서 1912년에는 ‘한국 주일학교 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듬해 1913년에는 전국적인 제1회 ‘조선 주일학교 대회’가 덕수궁에서 열렸다고 한다(“국내 첫 장로교 주일학교 연동교회 ‘소아회,’” 2007.05.04). 이후에 한국 기독교 교육사업은 유년주일학교 3대사업으로 ‘하기 아동 성경 학교’와 ‘아동성경 구락부’ 등이 추진하였고, 주일학교 100년사를 유지 하는 연동교회 ‘소아회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한국 주일 학교의 귀감이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문준경 전도사의 주일학교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의 업적이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하였지만 문준경 전도사는 외국 선교사가 아닌 조선인으로서 한국의 목회자에게 복음을 받아서 본인의 고향인 전라 남도 군도를 복음화 시키고 섬마을 어린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 자랑스러운 주일학교의 선도자이다. 그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일생 동안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었다. 그분의 후예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사회의 중요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 있으며, 100여년전 문전도사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오늘날 전라남도 신안군 군도 군민의 90%이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복음화의 건강한 주축으로 성장하였으며, 낙도 주일학교의 역사적 열매가 되었다. 순교자 문준경(文 俊卿 : 1891~1950)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무안군(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문재경씨의 3남 4녀 중 3째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해 주위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아가며 유복하게 성장하여 1908년 3월 17세가 되던 해에 남편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지도면 등선리 정근택(정운삼씨 삼남)씨와 결혼하였으나 결혼 초야부터 남편에게 버림 받고 몇일 뒤 집을 나간 남편은 평생 돌아오지 않았다. 딸처럼 여겨주시던 시아버지께 한글을 배우고, 시아버지 사후 홀로 재봉틀 하나 들고 목포에서 단칸 셋 방에서 샅바느질을 하며 살았다. 1927년 목포 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 성회 때 복음을 받고 1927년 3월 5일 북교동교회(당시 목포교회, 전라도 지역 최초의 성결교회)에 출석하였으며 당시 37세로, 1년 만에 학습과 세례를 받고 뜨겁게 예수님과 만나서 감격스러운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후예들,” 2016.02.21). 문준경 전도사는 전북 신안군의 24개 섬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주일학교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쉬지 않았다. 교회를 지을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도 특공대로 조직하여 어린이 새벽 기도회를 하였으며,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등 전도를 가르쳤다. 당시 군도 중의 하나인 지도 섬의 김문옥 장로님 자제는 문준경 전도사와 함께 했던 주일 학교시절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후예들,” 2016.02.21).

전남 신안군은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가 희생한 열매로 맺어진 복음화 마을이었다. 새벽기도 종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저녁 예배 종소리가 들리면 마을 어른들은 일손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주일 아침이면 힘 좋은 교회 집사님이 큰 북을 등에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셨다. 아이들은 그 뒤를 따르며 친구들을 불러 함께 교회에 갔다. 아이들은 교회가 예배당이자 놀이터였고, 또 학교이자 세상을 보는 창이었다. 여름성경 학교는 축제와도 같았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앉아 종일 율판 동화 듣기, 율동 배우기, 신나는 게임 등을 했다. 간식은 미숫가루와 알사탕이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요셉의 고난, 다윗의 모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며 마음 속 신앙을 새기던 시간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물질 적 유산을 많이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과 소중한 주일 학교의 추억을 선물로 남겨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후예들,” 2016.02.21).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에서 시작된 중도 주일학교 출신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즉 문준경 전도사는 주일학교를 통하여 제자화 교육과 제자 삼는 일을 몸소 실천하셨고 한국역사에 귀감이 되는 주일 학교 역사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C.C.C.)의 창설자 김준곤 목사님은 문준경 전도사의 주일학교 제자로서, 삶이 다 하는 날까지 문전도사를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요 신앙의 원초적 뿌리로 기억하며, 그 분의 삶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소개하였다.

문준경 전도사는 홀몸으로 가진 것 없지만 초상집도 찾아가고 싸움하는 집도 찾아갔다. 그 마을은 미신이 많은 곳이었기에. 재앙을 입고 동티가 나면 무당을 불러 굿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많은 집에서 무당 대신 문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청했다. 그는 그

마을의 사제(司祭)였고 간호사, 산파, 목자, 만인의 어머니였다. 그는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돌봐 주셨다. 그 분은 아침마다, 부잣집에 찾아가서 누룽지를 거두고, 잔치 집과 제사 집 음식을 얻어서 배고픈 아이들과 가난한 집을 돌보는 ‘대신거지’였다. 전국 교회 아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피부병 연고, 소화제, 소염제, 항생제, 영양제를 모아서 자루에 담아 가지고 신자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병자들을 심방을 하면서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그 동네의 드보라 같은 한국판 여자 선지자이며, 의사이며, 만나를 나눠주는 모세이며, 못사람의 어머니이며, 주의 빛이고 소금이고, 대사였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었으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학교보다 더 완전한 꿈을 키워주는 꿈의 산실이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생전에, 진리교회,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병풍도 교회, 그리고 지금은 모두 교회가 되었지만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신안군 군도에 교회가 없는 곳에다 우전 기도소, 재원기도소, 방축리기도소 등을 개척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사역은 오늘날 문전도사의 고향인 증도의 면민 2,000여 명 중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25사변 도중 1950년 10월 4일 밤, 공산당원들에게 문전도사가 30년을 밟고 살아온 전남의 낙도 중동리 모래사장에 끌려 나가서 “새끼를 많이 낳 씨암탉”이라는 죄목으로 죽창에 찔려 온몸이 벌집이 되는 고통과 비참한 수모를 당하면서 59세의 일기로 순교하셨다(“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후예들,” 2016.02.21).

문전도사 사후부터 지금까지, 기성 총회장 이만신(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기성교단의 위상을 세운 이봉성 총무, 이만성 총회장 김정총회장, 우전리 교회 지역 총회장, 안승갑 장로교단, 김준곤 C.C.C. 총재, 한신대 정태기 교수, 등이 문준경 전도사의 주일학교 출신이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신안군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도창교회, 팔금원산 교회, 기점교회, 소악교회, 고장교회등 신안군에는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가와 법관 등이 배출되었으며, 전주 박훈용 목사와 성결신문 기자 조재석 편집국장도 문준경 순교 기념교회 출신이며 그분이 가신 뒤 70년 동안 100여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후예들,” 2016.02.21).

한국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적인 주일학교 사역의 결실로 보여 지고 있다. 지금도 미래에도 문준경 전도사의 주일 학교 사역의 열매는 계속 되어 질 것이다. 이것은 외국 선교사가 아닌 국내 주일학교 교육의 자랑이요 축복이며, 한국 교회사에 주일학교 어린이 신앙교육의 최고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남기고 가신 수 많은 제자의 제자들이 오늘도 그 순교정신을 이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것이다(남도의 백합화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1891-1950 예수진리).

성경학교의 대동

한국교회 초기 교육운동은 성경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경건주의를 강조했으며, 네비우스 원칙을 적용한 선교적 방법으로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Self-Propagation), 헌금을 하여 자율적 후원(Self-Support)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한국 어린이 선교원 총회 1984, 47). 한국 초기 성경적 교육운동은 주일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자전을 통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학습문답으로 가르쳤으며, 세례를 주기 위하여, 성경 요리문답과 교리 법을 필수적으로 가르쳤다. 이러한 교회 교육 운동은 가정교육으로 이어져서 가정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고, 주일학교에서는 만국 통일 공과를 통하여 교사들에게 성경교육을 강력히 행하였다고 한다(한국 어린이 선교원 총회 1984, 47). 성경중심 교육 운동은 농한기에 각 지역마다 사경회를 불러 일으켰으며,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태동시켰고, 이러한 성경중심 교육은 한국교회를 선교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방향을 결정 지어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초기 성경적 교육 운동은 무지하고 외부문화와 철저히 단절되었던 우리민족에게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축이 되었다. 그 결과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의 입국이 어려워져서, 젊은 선교사들의 목숨이 불모가 되어, 불안하고 암울하기만 했던 시대적 난국을 헤치고 그 시작이 불과 20년-30년 만에 즉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늘날 복음으로 세계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즉 세상을 일깨워 주는 힘이 자라게 하는 선교사 파송의 나라로 자리 매김하게 해주었다고 본다. 또한 성경중심 교육은 민족적 기독교 교육 운동이었으므로 기독교 학교는 물론이며, 주일학교에서 ‘하기 아동 성경학교’가 해마다 열렸으며, 학생들에게 성경만을 전적으로 가르치는 ‘아동 성경 구락부’도 창설하여 온 민족의 신앙 운동은 성경 중심으로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민족적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구자는 우리민족이 살길은 ‘성경이 답이다’라고 외치고 싶다.

하기 아동 성경학교

1922년, 감리교 선교사가 설립한 정동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름성경 학교를 시작하였다. 5명의 교사와 100명의 학생들로 시작한 하기 아동성경 학교는 1924년 3월 31일, 주일학교연합회에 ‘하기 아동 성경학교 위원회’를 조직하여, 실행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세계 하기아동 성경학교 창설자인 보빌 총무를 초청하여 전국 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하기아동성경학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체육, 음악, 세계 위인전, 수학, 사회봉사 등을 포함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과 교회 그리고 신앙과 사회를 하나의 과정 속에 연결하였다(“주일학교 운동,” 2018.03.13).

본 연구자가 어릴 적 출석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명칭은 ‘하기아동 성경학교’ 였으며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이 되었다. 하기 아동성경학교는 기독교 복음선교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기아동성경학교에는 불신자가 30%였고 이 가운데 결신율이 50%에 달하여 성경학교가 복음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증명하였다. 1920년, 하기아동성경학교는 7월25일에서 8월25일까지 1개월간 지속되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한글, 국사, 산수, 노래, 유희, 체조, 공작을 가르쳐 지역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주일학교 운동,” 2018.03.13). 이러한 성경중심 교육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 부모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초기 주일학교는 일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고, 올바른 사회 지성인으로 양성하는 두가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궁극적 목적은 모국어(한국어)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성인이 되어 가면서 자립(Self Support)과 자치(Self Government) 그리고 자전(Self Propagation)이 가능한 미래세대의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는 것이었다.

아동성경 구락부(Children's Bible Clubs)

1930년 2월 평양 숭실 전문학교 교수 킨슬러(Francis Kinsler, 權世烈)에 의하여 빈민아동과 학령초과 아동의 단기교육을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이 ‘아동성경 구락부’이다. 초명(初名)은 ‘개척구락부’이었으며 설립 첫해에 13개 구락부 500명 학생이 수강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아동성경 구락부(兒童聖經俱樂部)로 개칭하고 성경을 소재로 한국어 독본을 만들었으며, 지리 산수 자연과 같은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주 5일간 매일 3시간씩 1년간에 소정의 과목을 마치도록 하였고, 주중(週中) 1일은 구락부 날로 정하여 일정한 구락부 순서를 집행, 건전한 신앙생활을 습득하게 하며 개척자정신을 길러주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기묘한 가족,” 2019.03.16).

초창기의 지도자들은 숭실 전문학교 기독교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사업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지도자와 교사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맡아 견실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당시 문맹퇴치 사업과 계몽사업에 크게 기여, 전국에서 매년 수만의 학생을 가르쳤고 또한 수강학생 중 미신자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70%로, 이들 중 입교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렀다(기독백과, 기독교신문 재인용).

아동 성경 구락부는 한국 초기 주일학교 교육선교에서 비롯 되어져서 교회 내 주일학교와 달리 교회 밖에서도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었다. 한국 선교사 방지일 목사님은 많은 아동들이 몰려와서 체육관에서 가르쳤다고 한다(“기묘한 가족,” 2019.03.16). 숭실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한 성경 구락부는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매년 수 만명의 학생들이 구락부를 통하여 불신 가정의 학생들에게 복음의 성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 초기 서구 선교사의 교육선교 역사

서양 선교사들의 교육기관 설립과 기독교 교육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 조선은 선교사를 서양귀신이라 불렀으며, 복음에 대한 거부감으로 선교사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계 선교부는 조선의 선교에 대하여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고 1883년 미국 공사관이 서울 정동에 개설되면서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교사 파송과 선교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김선민 2016, 15). 한국초기 서구선교사들은 복음전도의 매체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직접 실행한 것이 특징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의 이해를 도우하고자 서구 선교사들의 교육선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 선교사들의 교육선교는 당시 조선사회의 제도적 모순 즉 전제주의 국가로서 반상의 차이와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 사회적 현상을 직시하고 주로 소외계층을 겨냥한 교육지원사업이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민족의 높은 문맹률과 평균 수명 39세라는 치명적인 민족적 비운을 알게 되어 잘못된 위생 문제와 계급사회에 억압된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노력한 교육의 성과는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것은 한국 초기 서구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는, 무지하고 가난했던 우리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민감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도 적극적인 반응으로 도전하였다.

서구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으로는 교육기관 설립이 그 시작이었다. 가장 먼저는 1884년 9월에 내한하게 된 알렌은 현대 의학을 가르칠 학교와 병원의 필요성을 알고 1885년 4월10일에 현 연세대학 의대의 전신인 광혜원을 개설하였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6월3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두 청년을 데리고 첫 수업을 시작하여 1886년 감리교 선교부의 공인을 받고 11월에 미국공사를 통하여 고종께 학교설립 허가를 얻어서 7명의 학생으로 기독교 학교로서 첫 출발을 하였다(김영재 1992, 10).

고종황제는 선교사들의 노력에 감동하여, 남학교는 배재학당이라 칭하고 여자학당은 ‘이화학당’, 병원은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현판까지 하사하였다(박용규 2004, 552). 배재 학당은 이승만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겨레의 보기가 되었고 민족 정신의 중추가 되었으며 신문화의 선도가 되었다(2004, 552). 아펜젤러의 배재 학당을 시초로 전국에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Mission School)이 늘어나서 1922년 장로교 선교회는 대학 1개, 전문 학교 2개, 중학교 30개, 소학교 787개로 확대되었다(기독신문 2012.01.31).

수 많은 선교사들의 업적이 있었지만, 여성 주일 학교를 설립한 메리 스크랜턴(Mary F. B. Scranton 1832~1909)과, 남성주일 학교를 최초로 설립한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선교사와 간호 학교를 설립하여 복음을 전한 번스(Bouns, Beulah. V) 선교사의 어린이 교육 선교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에 주는 선교적 교훈을 찾고자 한다. 첫째는 메리 스크랜턴(Mary F. B. Scranton)의 어린이 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크랜턴은 40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53세이던 1885년 5월에 미 북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 파송으로 의사인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1856~1922) 내외와 함께 1885년 6월 30일에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온 한국최초의 감리교 여 선교사이다. 이들 모자(母子)는 이 땅에 와서 어머니는 여권신장과 교회개척 그리고 교육선교를 하였고, 아들은 의료와 교회 개척에 힘쓰며 한국선교에 헌신하였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조선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으로 이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교육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여, 아이들 교육을 먼저 시작하였다. 처음에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아이는 콜레라에 걸린 10살 정도의 ‘별단’이라는 떠돌이 아이였으며, 여성교육을 기피하는 사회풍조로 교육선교 초기,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서 주로 기생과 천민 상로들의 여식들이었다(김일환 2016, 118-22).

서양인에 대한 배타적 심리가 더해져서 그녀는 ‘서양도깨비’라고 불리 어 졌으나 굴하지 않고 조선인의 교육을 위하여 자신의 친구들에게 대지 매입비용과 건축 재정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서울 정동에 대지 6000평을 매입하고 교육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886년 5월 31일, 한 관리의 소실인 김 부인이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왔다. 이로써 단 1명의 여학생으로 역사적인 첫 영어수업이 이루어졌고, 이 날이 이화학당의 창립일이었다. 1887년 학생수가 7명으로 늘어나고, 과목도 성경과 국어가 추가되었으며 동년 11월에는 200평 규모 기와집 교사(校舍)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로부터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의 ‘梨花(이화)’라는 친필의 교명을 받았다고 한다(김일환 2016:80~82). 다음 해 1888년 1월 15일에 서울 정동 이화학당에서 처음 어린이 12명과 부인 3명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 탄생이었다. 이 때에 주일학교 성경공부는 분반공부 형식이 아니라, 통반으로 하여 한 교사가 전체를 공부시켰다고 한다(“우리나라 해방 이전의 교회학교,” 2017.09.13).

당시는 성경공부 형태로 여자아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19명의 여성으로 시작된 주일학교는 여성들만의 주일예배로 발전하여 1889년 2월 12일 한국 최초로 여성교회Woman’s Church가 조직되기도 했다(김폴린 1999, 74~76).

1890년대에는 상동교회에서 전도부인을 대상으로 단기 성경교육을 시작하여 “전도부인양성소”를 개설하였다. 이것이 1900년 어간에는 “감리교 부인 성경학교”(The Methodist Bible Womem’s Training School)가 되고, 1920년에는 “협성여자 성경학교”(協成女子聖經學校)로 이어져서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이 되었다. 메리 스크랜틴의 교육사업은 이화 학당에서 시작된 주일 학교를 모체로 하여 교육 선교활동은 지방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메리 스크랜틴은 1906년 고종황제의 계비(繼妃)인 순헌황귀비 엄씨와 그의 동생 엄준원을 도와 진명여학교 숙명 여학교 등을 설립하였다(“우리나라 해방 이전의 교회학교,” 2017.09.13).

스크랜틴의 교육선교는 주일학교의 발전은 물론이며, 여성의 의식을 깨우고 다양한 사회진출을 가능케 하였다. 3·1운동의 상징적인 여성운동가 유관순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의사 박에스더(김점동),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고 와서 여성 계몽운동을 펼치고 독립운동가 김란사, 김활란, 김마리아 등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가 근원이 되어 복음의 불길은 이어지고 있다. 메리 스크랜틴은 한국에 주일학교 개척자이며, 여성교육의 개척자이며, 열정 적인 복음 전도자였다. 그녀는 1909년 10월 8일 한국에서 25년간의 한국선교를 마치고, 소천하셔서 양화진에 묻혔다(세계선교공동체-<http://www.wmc.or.kr/>).

한편 1885년 4월5일 제물포(인천)에 도착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는 조선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엮어 멘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이었다(한규원 1981, 140). 그는 17년 동안 한국인들 사이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가 설립한 배재 학당은 1885년 8월에 한옥을 매입하여 4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6월 8일 고종이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교명과 함께 당시의 명필정학교로 하여금 액(額=현판)을 쓰게 해서 하사하였다 이것은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학교였으며, 1888년 3월11일, 남성 주일학교를 조직하여 남학생들을 전용으로 가르쳤다.

배재학당의 교육과정은 예비과정부, 교양과정부, 대학 과정부를 두었으며, 영어, 중국고전, 서구의 과학과 문학 등을 공부했다(한규원 1981, 140). 아펜젤러의 3월12일 일기에는 남성 주일학교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베델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어제는 14명이 참석했다. 어제부터 영어로 말하는 주일학교를 내 집에서 시작했다. 학생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당분간은 영어로 해야 한다.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김폴린 1999, 74~76)

당시 배재학당에는 아직 포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학부가 정식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성서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자연히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고 이들은 정규수업 시간 외에 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임이 기도회를 만들고 주일학교를 조직했으며 이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당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선구자들이 되었다(1999, 74~76).

1887년 아펜젤러 목사에 의한 처음 세례식이 있었고, 또한 그의 한국말 설교가 있는 후 여러 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반드시 주일학교가 조직되었다. 그때 교회학교는 장년과 유년이 같은 방에서 성경을 배웠다(1999, 21). 남자 반은 배재 학당에서 아펜젤러가 예배를 인도하고, 여자 반은 이화 학당에서 스크랜톤 부인이 주로 예배를 주관하였다. 당시에 내외 법이 엄하여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거니와 동시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남녀가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한규원 1981, 140).

1932년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번스 선교사(Beulah.V Bouns 1906-1990)의 어린이 선교는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의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다. 그녀는 이 땅의 가장 소외계층을 위하여, 교육과 의료를 겸한 선교사역으로 시작되었다. 번스 선교사는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와 함께 어린이 교육선교로 42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1932년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번스 선교사는 함흥 제혜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으며 세브란스 간호사로 환우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다. 한국에 있었던 시간은 무려 42년 동안 태평양전쟁과 8.15 해방, 그리고 6.25전쟁 등 아픔의 민족사를 함께 겪었던 번스 선교사는 고난의 한국인들에게 한결 같은 사랑을 베풀었던 ‘푸른 눈의 천사’였다 (한규원 1981, 140).

1940년 일제의 탄압으로 외국선교사들의 신변이 위험해지게 되어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번스 선교사는 한국의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기 위하여, 또한 한국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캐나다 본국에서 소환령이 있었지만 평양 제혜병원 간호사로 자리를 지키면서 병들고 굶주린 불쌍한 어린 영혼들과, 전쟁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간호사 양성 학교를 운영하여

간호사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남아있던 번스를 포함한 소수의 선교사들은 전쟁포로로 억류되었다가 제3지역에서 일본군 포로와 교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아이굿 뉴스 2010.07.14).

1948년 다시 한국에 돌아온 번스는 세브란스 의과 대학병원의 재건사업에 참여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소아간호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번스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머물며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휴전회담이 성사되어 제한적 입국이 허락되자 선교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서 1951년 부산항에 도착한 번스는 거제도로 향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 다시 세브란스 병원 재건에 참여했다. 병원 내 ‘우유 방’을 설치한 번스 선교사는 영양실조로 체중이 미달되는 유아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영세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해 아기 물품과 약품을 조달하는 등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이렇게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한 그녀는 1962년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1974년 연세대 간호학과 60주년 기념식에서 30년 근속표창을 받고 은퇴 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제1호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아이굿뉴스 2010.07.14). 그는 은퇴 당시 퇴직금 조차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하고 연세대 병원 어린이 병원3층에 ‘어린이 전용 예배실’을 마련해 주시고 캐나다 본국으로 돌아 가서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1990년 8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번스 선교사는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빛처럼 다가오신 작은 예수의 삶을(아이굿 뉴스 2010.07.14).

기독교 신앙 교육과 근대 문명의 발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복음으로 개화된 나라이다.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 사역의 시작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선교사들에 의하여 개화가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20세기 기독교 복음의 산실로서 세계 기독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갈림길에 있는 한국은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개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침략과 전쟁의 연속으로 시달리는 국운이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서양 선교사 들의 입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극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연결시키기도 하는 위치이기에 중국에게는 방패가 되고, 러시아에게는 태평양 진출의 길목이요, 일본에게는 아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교량이 되어야만 했다. 또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한반도는 싸움의 목적물이 되기도 하였다(Rhodes 1934, 26).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 땅은 세계로 통하는 연결고리가 되듯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일본과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으며, 오늘날 선교사 파송과 복음을 전파할 때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불붙듯이 시작된 선교 사역은 만주, 산둥, 시베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오늘날 2만이 넘는 선교사들의 복음사역을 이루어 내었으며, 심지어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한글을 자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로 사용할 수 있게 가르쳐 주어 성경을 자기 나라 모국어 발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하기도 하는 결실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암울한 민족 정신을 깨우쳐주고 한국이 동방의 등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 조선 땅은 유교와 불교가 민족의 전통 신앙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젖어 있었으며, 이것은 무속 신앙으로 발전하여 미신과 샤머니즘(Shamanism)적인 종교 풍습이 만연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 사회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에는, 만주에 드나들며 상업에 종사하던 한국인들이 거기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번역한 전도지들과 쪽복음들을 가지고 들어와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백락준 1970, 6~7). 이후에 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 알렌(H. Allen)의 입국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며, 선교사들은 당시의 폐쇄적 한국 사회에 대하여, 기독교 선교를 위한 전략으로 교육선교와, 의료선교, 그리고 교육기관과 교회를 설립했다고 한다(장원철 2014, 139).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화는 복음전파에 의하여 가속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 땅에서 신음하는 민족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땅에 보내진 선교사들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교육과 의료, 종교적인 면과 문화, 경제, 즉 모든 면에서 개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과 의료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위한 매개체로서 사용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문맹을 깨우치는 한편, 인재를 기르는 수단이 된 것은 물론이며, 여자와 어린이들의 신분을 격상시키는 사회적 문화를 창출 해 내었다고 본다. 따라서 초기 교육선교는 단순한 복음전도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개화되지

못한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문호개방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장원철 2014, 139).

교육 선교는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글자를 가르쳐서 문자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복음전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 받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했다. 이것은 민주적 민족의식과 인격적 협동과 질서를 알게 함으로서, 무엇보다 종전의 한국조정을 지배한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을 종식시켰다 할 수 있다. 이로써 당시 고종황제는 서구 선교사들의 의뢰와 교육선교를 지지 했으며, 조미수호조약을 맺게 되었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까지 했다. 또한 명성왕후는 언더우드에게 천국의 복음을 듣고자 왕궁으로 초대하였고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무지하고 미개한 우리 민족에게 빛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독교 교육의 영향력으로 국가적으로는 임금이라는 한 사람 아래 관리와 하위계급 그리고 양반과 천민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연한 제도적 병폐를 초월한 평등하고 이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를 창출 하게 하였다. 또한 초기 기독교 신앙 교육은 개인 사생활에도 파격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경건한 기독교인 으로서 술과 담배, 도박을 절제하게 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였으며, 지식을 갈구하여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교육열의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근대화를 추구하고 국력을 기르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몽차원의 민족교육이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의 여러 기관들이 민족운동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3.1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과 같이 민족 교육의 일환으로 크게 작용했다. 이렇듯 민족 교육의 일환으로서 주일학교 교육은 마침내 1925년 논산 강경성결 교회 성도 들과 강경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강경 공립 보통학교 학생들 57명과 교사 1명이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하게 되었다(한국 어린이 선교원 총회 1984, 47).

사회 문화적으로는 서구 선교사들을 통하여 들어온 기독교 교육은 서양식 학교가 세워지고 서양학문을 배우게 했고 외국어를 보급하게 되었으며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과책과 교과서, 잡지, 소설 등과 같은 출판물 보급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의료를 통하여 생활 속의 의복이 달라지고, 위생이 달라져서 질병 퇴치와 20세기 초 평균 수명 39세라는 불운을

뛰어 넘게 되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 교육선교는 민족 전체를 변화시켰으며, 무엇보다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계선교의 선봉이 되는 기초를 닦게 하였다.

요약 및 선교적 함의

1800년대 후반에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 되어있던 조선의 선교는 젊은 청년 선교사들의 어려운 입국으로 시작되어 불안하고 암울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서막을 열었다. 당시 서구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선교를 복음의 매개체로 사용하였으며,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현대식 교육을 하였지만 오직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 부모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한국 초기 교육선교는 문맹을 퇴치시켰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몽차원의 교육 선교로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대화의 길로 개화되게 하였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 사대주의 사상을 타파하고 반상의 차별을 초월하고,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소외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냈다. 제 5장에서 한국 초기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에서 알수 있는 선교적 함의는 미개하고 무지하여서 국가적으로는 외세로부터 침략과 억압에 눌렸고, 제도적으로는 같은 민족끼리 주종의 관계로 살아야만 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다고 분명하게 증명하기를 원한다.

초기 한국 기독교 교육은 젊은 선교사들이 돌팔매질을 당하며 전하였던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과 암초에 좌초된 배에서 소녀를 구하려다가 익사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죽음 등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으로 기독교 교육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켰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굽히지 않는 영원한 신앙 유산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선교사업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도 선교헌금을 자발적으로 한다. 개인적으로도 선교사 한, 두 분 정도는 연결되어 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교육운동은 성경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시작되어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경건주의를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네비우스 원칙을 적용한 선교적 방법으로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Self-Propagation), 헌금을 하여 자율적 후원(Self-Support)까지 이루어 지게 하는 모범적 선교의 대표적 사례이며, 극히 성경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교육의 결실로 세계선교의 선봉이 된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6 장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상황적 관점

본 장에서는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상황적 관점을 서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제도적 현황으로 헌법, 교육 기본법, 학생조례에 명시된 기독교 교육 관련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고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 분석과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제도적 현황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정한 종교 교육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적인 법률과 조례를 둔다. 그리고 한국의 법령은 기독교 교육에만 적용하도록 제정 된 것은 없으며, 모든 종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게 종교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법규와 제도적 현황을 알기 위하여는 ‘종교교육’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기독교에 대한 허용의 한계와 제한 점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종교교육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현황이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신앙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논하고, 비둘기유치원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헌법에 명시된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법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20조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포함하는 것이며, 타 종교인에게 개종을 권유하는 것까지 허용되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귀성 2012, 71). 교육기관의 특정 종교교육은 사립학교에 한정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 20조 2항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 공립 즉 정부 기관에서 설립한 공립교육기관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수 있는 자유와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종교교육 자유의 주체는 사립학교에 한정된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립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김용관 2017, 99).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법률

대한민국의 제정 법률 가운데 교육기관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법령은 ‘교육 기본법’이다.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특성화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의 설립목적에 위한 기독교 교육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교육 기본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6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 즉 국, 공립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한 것은, 학교법인 또는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사립 학교에서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의 교육기본법(1949년과 1963년)의 개정 교육법에는 사립학교에 대해 국고 및 시도 재정의 지원이 금지되어있어서, 사립학교의 운영 자체를 독자적으로 해야 했으며, 국 공립 학교는 모든 운영자금상의 재정 충당을 국비로 지원하였다. 이처럼 사립과 공립이 설립기관과 운영체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는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법률적 보장을 받을 뿐 아니라, 종교 교육과정 운영이 자율성을 띠고 완전히 가능할 수 있었다.

교육 기본법 16조 1항은 교육 기본법 제6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하위 법령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12. 04. 16. 대통령령 23726호, 교육과학기술부)이다. 교과서 인정도서의 인정에서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종교 관련 도서들이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로 인정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한번 인정도서가 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교과과정을 새롭게 수정해도 굳이 새로운 인정도서를 개발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김귀성 2012, 72). 이것은 특정종교에 대하여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교과용 도서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 관청에서 인정된 종교 관련 교과서들은 <표 1>과 같다(김귀성 2012, 73).

<표 3>

전국시도 교육감 인정 교육별 교과서 목록 2000년 - 2010년

종교	도서명	중.고	학년	인정년도	저작권자	발행인
----	-----	-----	----	------	------	-----

별						
불교	종교(불교) 1학년	중	1	2000	진각종 교재편찬위원회	경서원
불교	종교(불교) 2학년	중	2	2000	진각종 교재편찬위원회	경서원
불교	종교(불교) 3학년	중	3	2000	진각종 교재편찬위원회	경서원
불교	종교(불교)	중	전학년	2002	서윤길	조계종출판사
불교	중학교 종교(불교)	중	전학년	2009	김무생	도서출판 해조음
불교	종교(불교)	고	전학년	2002	서윤길	조계종출판사
불교	고등학교 종교(불교)	고	전학년	2009	김무생	도서출판 해조음
개신교	종교(기독교) 1	중	1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2	중	2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3	중	3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상	중	전학년	2002	김종희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중	중	전학년	2002	김종희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하	중	전학년	2002	김종희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상	중	1	2006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중	중	2	2006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하	중	3	2006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상)	중	1	2006	김치성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중)	중	2	2006	김치성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하)	중	3	2006	김치성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1	고	1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2	고	2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3	고	3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상	고	전학년	2002	김종희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중	고	전학년	2002	김종희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종교(기독교) 하	고	전학년	2002	김종희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중학교 종교(기독교) (상)	중	1	2006	김치성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중학교 종교(기독교) (중)	중	2	2006	김치성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교	중학교 종교(기독교) (하)	중	3	2006	김치성	한국장로교출판사
개신	고등학교 종교(기독교) 상	고	1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교						
개신교	고등학교 종교(기독교) 중	고	2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개신교	고등학교 종교(기독교) 하	고	3	2002	이원설	생명의 말씀사
천주교	종교	중	전학년	2001	안병초	가톨릭문화원
천주교	종교(가톨릭)	고	전학년	2002	이문희	가톨릭문화원
원불교	중학교 종교(원불교)	중	전학년	2002	고시용, 박희중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고등학교 종교(원불교)	고	전학년	2001	나상호	원불교출판사
통일교	생활과 종교 1	중	전학년	2010	이재일	(주)성화출판사
통일교	생활과 종교 2	중	전학년	2010	이재일	(주)성화출판사
통일교	생활과 종교 3	중	전학년	2010	이재일	(주)성화출판사
통일교	생활과 종교	고	전학년	2010	이재일	(주)성화출판사

<표 1>에서 확인되는 2000-2010년 간의 종교 별 인정 중학교 25종, 고등학교 14종이고, 종교 별로는 개신교가 24종으로 가장 많고, 불교가 7종, 천주교가 2종, 원불교가 2종, 통일교가 4종이다. 그리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목명이 ‘종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행된 인정도서들은 모두 ‘종교’라는 도서명을 사용했고, 발행기관 관련 종교에 따라 괄호에 특정종교를 표시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병기하면서 필요에 따라 1,2,3 혹은 상, 중,

하로 구분하는 방식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과목명이 ‘생활과 종교’로 바뀌면서 교과서명도 동일하게 바뀌었다(2012, 74).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는, 교육부서가 인정한 종교 별 교과서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 내용이었으며, 인정을 받은 것은 교육부로부터 특정 종교교육에 대하여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자주성’ 즉 특정 종교 교육과 공립학교의 ‘공공성’과의 마찰이 빈번 하였고, 마침내 사법부의 판례도 발생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교육기관을 통한 기독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급기야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된 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과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기독교의 선교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에서는 교육기본법 제 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기독교 사학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아, 지속된 기독교 교육을 해 왔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기본법 제 17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는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관계 관청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하는 사례로 민원과 거부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전체 입시제도의 변화와 교육 지방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을 민선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먼저는 1980년대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당시에는 거의 이러한 반발이 없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중등교육이 의무 교육화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평준화되면서 국, 공립과 재단, 법인, 개인의 사립 등 모든 중, 고등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이 지역별로 배정되는 입시 제도로 변화되었다.

상위학교 입시제도의 변화로 모든 사립 중, 고등 학교 역시 국가의 지원자금으로 운영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사립도 공립학교의 공공성의 범위에 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배정받은 중, 고등 교육기관이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 일지라도 배정받아서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정 종교 교육과 같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다는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기를 때문이다.

또한 교육감의 지방선거는 현직 교육 지방단체장으로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있게 마련이다.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하여 재제하는 규범을 강도 높게 적용시키면서 설립자와 교장 및 학교 운영자에게 공공성에 맞지 않는 자율성에 대하여 문제 삼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교육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표2>와 같다.

<표 4>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교육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법적 근거

관련 법령	조문	비고
교육기본법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공공성 확보
교육기본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주성 확보
사립학교법 제1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과 자주성 모두 중시
사립학교법 제4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공공성 확보
사립학교법 제43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주성 확보 (공공성 담보)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은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주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설립 목적의 존중”에 중점을 두면서 지원·육성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공성의 확보는 주로 “지도·감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2012, 84).

이것은 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측과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 학부모 간의 분쟁 즉 ‘자주성’과 ‘공공성’의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어느 한 쪽도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모호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종교재단 설립 학교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특정종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방자치 단체를 통하여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맞 대응하는 현실을 빚어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별히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기독교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의 상충되는, 기독교사학의 대표적인 학교재단 몇 곳의 건학이념 사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송실 학원(개신교 재단)

기독교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지 않는다. 다만 분화적 목적 추구 과정에서는 기독교교육이 우선한다. (홈페이지 www.soongsil.net 참조)

계성 고등학교(개신교재단)

교육목표: 1. 박애하고 봉사하는 기독교 정신을 기른다. 2. 건강한 육체와 굳건한 의지를 기른다. (계성고 홈페이지 www.keisung.hs.kr)

동성 고등학교(가톨릭 재단)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복음화(福音化)와 전인교육에 공헌하는 것이다. 우선 신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선포하고 따르는 인생관을 확립하도록 도우며,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동성고등학교 홈페이지[www.dongsung.hs.kr])

상기와 같은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의 자율적 실행은 기독교 사학의 존립가치를 말해준다. 그러나 2006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관내 기독교 사학에 보낸 공문 ‘종교 관련 교육과정 지침 준수’(2006. 5. 16), ‘2006학년도 종교 관련 장학 지도 계획’(2006.5.24)에서 기독교학교에 대한 종교교육 금지 내용을 포함하여, 기독교 사학에서는 모든 행사 활동에서 찬송과 기도는 물론 기독교 동아리 활동, 신앙 수련회 등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종교 활동을 통한 전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당당뉴스 2006.06.12).

학생 인권조례에 명시된 기독교 교육 관련 규정

대한민국은 공교육 기관에서 기독교 교육 및 타 종교교육의 실시에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헌법과 교육기본법 외에 각 시, 도에서 학생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의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로서 각 시, 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지 않으며, 교육행정 직무상의 규제를 위한 것에 국한된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에 대하여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반면 학생선도와 사립학교의 자주성, 그리고 교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각 시도별 조례 제정 및 실시여부도 일치하지 않고 그 내용도 각기 다르게 제정되는 실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7월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 3개 시·도(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입법 예고(제2012-179)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제정 안이 마련되어 심의 중에 있다. 그 외에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충청북도는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김귀성 2012, 83). 서울 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를 비롯하여, 시행 중인 3개 시도와 공고된 1개 도의 ‘학생인권조례’에는 모두 종교 및 ‘종교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2012, 84).

<표 5>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시도별 종교 교육 관련 조례 내용 (2012, 84)

시도	종교관련 조문
경기도 (제4085호, 2010. 10. 5 제정·시행)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양심 종교의 자유) ①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p>광주광역시 (제4017호, 2012. 1. 1. 시행)</p>	<p>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①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서울특별시 (제5247호, 2012.1.26. 시행)</p>	<p>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⑤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p>
<p>전라북도 (공고 제2012- 179호)</p>	<p>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학생인권 조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례의 주체는 학생이며, 규제 대상은 설립자와, 학교장, 그리고 교직원이라는 점에서는 전국이 모두 동일하다. 특히 서울 특별시의 ‘학생인권 조례’는 기독교 교육 및 특정 종교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7개 항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3>에서 공통된 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관련 지어서 함께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연계되는 것으로 보고, 종교는 각개인의 신앙양심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기독교를 비롯하여 여타의 종교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금지 사항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교육 기관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원인이 되어 법적 판례까지 양상 되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 교육의 제도적 현상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 기본법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기독교 교육을 비롯한 특정 종교교육에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명시된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기독교 신앙교육에 대한 제도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법률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허용하고, 그것을 위한 교과서까지,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규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현 주소이다. 또한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헌법과 교육기본법 외에 조례 즉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권한을 주어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도록 재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님께 서원한 비둘기 유치원의 설립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현실 앞에서 그곳은 원장의 직장 일뿐이었으며,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 2012년 초에 어린이 전도 협회 교사들이 비둘기 유치원에 찾아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 해주시기를 바라는 요청을 해 왔다. 이에 원장은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로서 정규 수업을 받은 후 방과후에 연장 수업을 받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일 1시간 주 1회 기독교 교육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본 원의 교사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훈련받은 교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와 어린이 찬양을 준비해서 가르치게 되었으므로 어린이들은 매우 재미있게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도 하나, 둘 생기게 되어 사뭇 기쁘기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교육시간도 4년 정도는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이제는 범 국민적으로 대두되어, 당시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Mission School)의 종교 교육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종교교육 금지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민원들이 연일 이어지면서 언론기관 매체를 통하여,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전국 공교육기관에서의 특정 종교 교육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모든 종립학교(Mission School)에서는 더 이상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는 법률을 강화하였으며, 각지방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종교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것은 관인 사립 유치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요약 및 선교적 함의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특정 종교교육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현황이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정리하였다.

한국 법령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으로 기독교 사학의 기독교교육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과서도 심의를 거쳐 인정하였으며, 교육부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기독교 교육 교과서 내용은 거의 변동 없이 교육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과 교육기본법 제 25조 사학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로 기독교 사학의 자율적 기독교 교육을 뒷받침해주었다.

하지만 한국의 상위학교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등교육이 의무화되고, 고등학교 역시 평준화 되어지면서 학생들은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역별로 배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학에도 공공성을 요구하고,

기독교 사학의 자율적 종교 교육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며,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법적 투쟁까지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각 시, 도 별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학생 인권조례’라는 법령의 하위 규범을 정하여 기독교 교육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는 교내 학생 선도와 교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상충되는 논란을 빚게 되는 우려와 염려로 몇 개의 시도 외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기독교 교육의 현주소는 법적으로 기독교교육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을 국민선거로 선출하게 되면서 민원을 의식하는 지도층의 심리적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기독교 신자들 외에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거부당하고 있으며, 관계관청은 사실상 금지를 위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제도적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사회적 현상은 한국의 교회재단과 기독교인들이 설립한 유아 교육 기관에도 설립의 목적을 상실케 했다. 즉 비둘기 유치원 또한 예외 될 수 없이 민원이 이어지고 입학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비둘기 유치원은 관인 유치원이므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유아교육의 무상 교육법에 의하여 유아 학비 80%를 국비로 수납하므로 국가의 규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비둘기 유치원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의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 신앙의 전수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 올 것이며, 한국 내 선교사 양성과 파송의 대가 끊어질 것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교회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한국의 다음세대들은 머지않아 타 문화권의 선교대상으로 전략 된다고 할 만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라면 개인적으로도 선교헌금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세계선교를 외치며,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는 선교도 중요 하지만 자국은 머지않아 기독교 불모지가 되어 질것을 염려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자국의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노력하고 실천을 강구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준 외국 선교사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제 7 장

기독교 신앙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

본 장에서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한국 사회적, 교회적 그리고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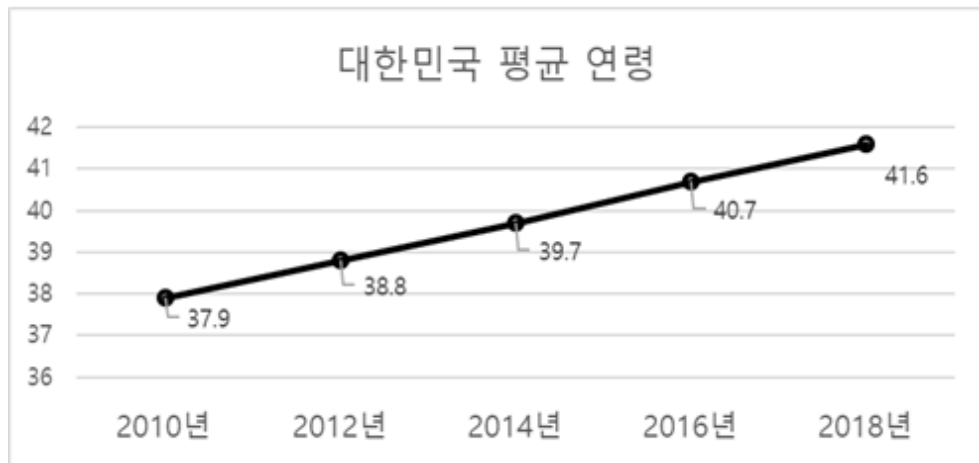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사회는 개신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한 현실이다. 이것은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즉 다음세대 신앙 교육기관이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열악해지고 있으며, 소형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인 한국사회 교회의 현상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한국 교회 현상은 1980년대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던 당시에 각 교회 사역자들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 중심의 교회성장에만 관심을 가진 크게 잘못된 가치관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 기독교 교육의 문화적, 사회적 수준은,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 및 문화의 선진화에 빼앗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 선진화는 동네마다 아파트 숲을 이루는 주거 문화의 발달과 함께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으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각종 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오락기기 등의 물결은 교회교육보다 훨씬 빠르게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창출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은 성장세대의 온 마음을 잠식시키고 있으므로, 교회 내 기독교교육은 교회 밖의 어린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어린이 전도와 청소년 전도의 불 모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 사역자들의 왜곡된 가치관 즉 교인 수 증가와 교세 확장만이 교회성장의 목적으로 삼았던 시대적 부패 현상과 부모들의 변질된 신앙적 가치관이 빚어 낸 결과로 한국사회 어린이들은 타 문화권의 선교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사회의 이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은 저 출산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3년내의 년 출산율은 1.17명이며, 매년 0.9%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OECD 회원국 기준으로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기독일보 23019.03.20). 그림 1과 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한국은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었다. 한국사회 고령화를 재촉하는 원인으로 젊은이들의 독신이 늘어나며 만혼과 무자녀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실이 비워지고 대학마다 학생 유치에 어려워지며 군 입대하는 지원자의 수조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한국사회에서는 다음세대의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사회는 초 고령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교회에도 고령화를 자아내며, 다음세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교회성장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0년 이후 한국 교회의 기독교도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한 해 3000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개척 2년 만에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게 되었다(아고라 뉴스 자료).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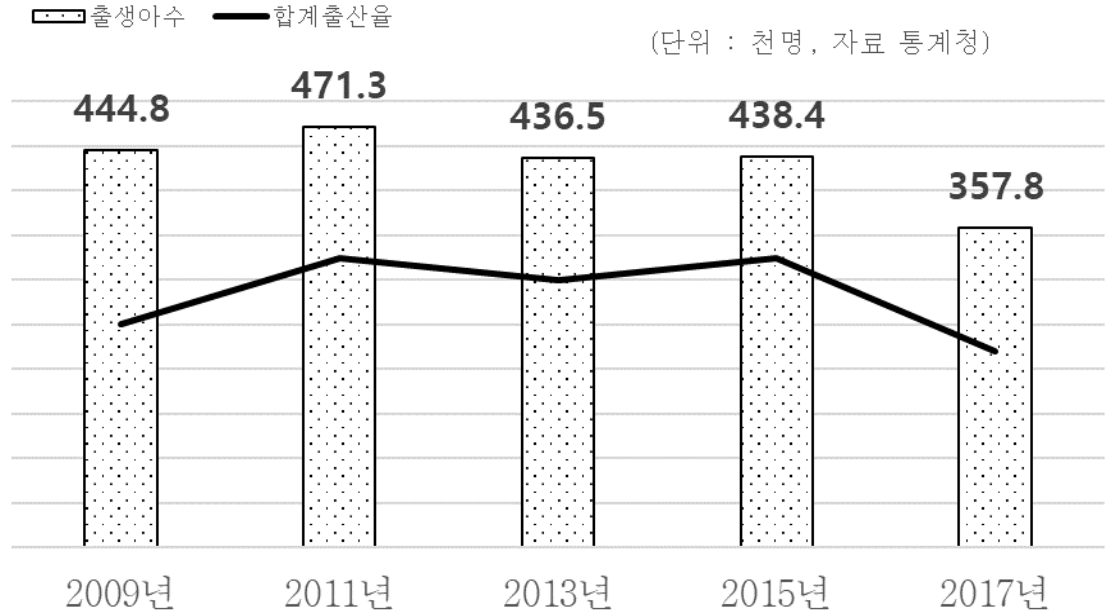
대한민국 인구 생태 변화 추이



최근 10년간 한국사회 출산률 현황은 <그림2>와 같이 알 수 있다.

<그림 2>

한국사회 출생률 현황
(이슈특집 “작년 출생아수 ‘역대최저’” 2018.08.22)



한국교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며, 머지않아 한국은 선교사 파송은 물론이고 교회 유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자녀의 영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선진국가의 성공적인 실천 사례를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개신교 130년 역사를 돌아보며,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선교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신 서양 선교사들의 복음적인 열정과 순교를 잊지 말아야 하며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피폐해진 한국교회 주일 학교의 회복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며, 그것은 교회 성장은 물론이며, 선교지향적인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을 다음 세대에도 대를 이어서 훌륭한 신앙유산으로 전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한국교회의 사명으로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일학교가

온전한 신앙인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차세대 교육의 장이 되어서, 21세기 복음사역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선도적인 지도자를 길러 내는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의 침체된 원인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 현상을 정의 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성도들 즉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가치관이 문제이며, 다음으로는 오늘날 한국교회 내 주일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부재가 큰 문제인데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영성과 사명감의 부재가 크게 작용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이 세가지 부조리한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 교회 내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린이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의 부재

한국교회 각 가정에서는 부모들을 통한 신앙교육의 부재가 큰 문제이다. 가정교육이 흔들리는 가장 큰 요인은 ‘대입 지상주의’ 또는 ‘성적 지상주의’이다.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보다는 학교성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현유광 2008, 19~20)고 한다. 그렇다 언제부터인지 아동중심 교육이라 하여 학교도 가정도 아이들의 의사를 무조건 존중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아이들이 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며,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로움과 해로움의 유무를 막론하고 내버려 두는 양육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독교 가정에서도 거의 예외는 없으며 특히 성적과 대학입시 위주의 학습이 기독교 신앙교육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불신가정과 기독교 가정이 모두 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 내 모든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발달을 도우는 부모의 역할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박순옥의 2012년 기독교인 부모들의 자녀 양육실태를 조사 분석한 연구에서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기독교 교육은 부모의 신앙지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생활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드리는 부모는 조사 대상 약 200명 중 35%(70명)만이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었고 가끔 하거나 식사 시간에만 하는 가정이 58.9%로 118명 즉 반 이상이었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부모들이 6.1%로 12명이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실패는 전혀 못 드리는 가정이 50.8%로 197명중 100명이상이었으며, 목회자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목회자 23명중 13가정으로 반 이상이였다.

성경책을 매일 읽어주는 부모들은 15.7%로 조사대상 약 200명중 31명에 불과하였으며 거의 읽어주지 않는 부모가 24.9% 그리고 가끔씩 읽어주는 부모들이 있었다. 또한 성경적 내용의 책을 20권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조사대상 197명중 25명으로 12.7% 였으며 50% 이상이 10권 이하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볼 때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거의 부재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세계 선교를 지향하기 이전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교회에 가는 것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부모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한국사회는 고도로 산업화되었으며, 빠르게 접속되는 정보화와 다양한 문화적 양상과 4차 산업의 물결 속에서 한국교회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기복신앙과 왜곡된 영성으로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빚어내며, 문화에 복음을 희석시키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생활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돌이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 된 부모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교회생활과 신앙발달 상황을 부모들에게 알리고 상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신앙 교육을 위해 동역 해야 한다(현유광 2008, 22~23).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 교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늘날 화려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 발달을 촉진시키는 부모의 역할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본다. 그것은 기독교인 부모가 신앙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가정사역이 될 것이며,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신앙적 삶의 방향을 확고히 갖게 되기 때문이다.

주일학교 예배의 말씀 부실

교회 내 교육기관의 예배의 부실이 문제이다. 한국 교회에는 문화 사역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았다. 따라서 교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을 잡으려고 문화에 치중했지만, 결과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문화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김인환 2011, 194).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도입하여 어린아이들의 흥미도를 채우고자 노력하면서,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친구 초청 잔치와 달란트 잔치 그리고 물놀이와 먹거리 잔치 등 예배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들였지만 복음은 후퇴하였고 주일학교는 성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교회는 프로그램 천국이다. 심지어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사이트가 넘쳐 나고 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여러 프로그램과 예배에 활용되어지는 기자재는 예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기능도 훨씬 편리 해졌다. 하지만 주일학교는 갈수록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약하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허금희 2005, 초록).

한국교회 초기 서양 선교사들은 교육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여기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학교를 먼저 지었지만 학교 교육은 복음전도가 목적이었다고 한다. 복음으로 교육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특히 어린이 신앙교육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켰고, 민족교육으로 당당하게 영혼 구원 사역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 학교는 말씀 즉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 있으며, 다양한 수련회와 미디어기기를 활용하면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지나치게

기울어지게 되면 성경을 기초로 한 말씀 교육을 소홀하게 되며, 복음을 온전히 전 할 수가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효율적인 이벤트와 수단으로 어린이들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교사강습회와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고 많은 물질적인 투자로 다양한 행사를 하며, 전도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기독교교육기관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 저 출산으로 인한 아동수의 감소로만 보기에 어렵다.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 볼 때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어린이들은 몇 번 오고는 계속 오지 않는 어린이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진정한 예배가 주일학교의 생명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건전한 어린이 기독교교육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열심과 영성의 부재

현대 주일학교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것이 교사문제이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훌륭한 프로그램도 없이 손풍금(어코디언) 하나만 가지고도 주일 학교에 어린이들이 몰려왔으며, 큰북 하나만으로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시대적 차이도 있겠지만 그 때만큼 교사의 소명의식과 열정을 보기 힘든 것이 한국교회가 인정해야 할 현실적 문제라고 본다.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재미 있는 프로그램 진행보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교사의 소명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교사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교사이다(김인환 2011, 10).

초기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의 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주일학교 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교사는 신실한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동진의 2003년 교회학교 교사 인적 현황 조사 연구에 의하면 주일학교의 성장 정체와 어린이 감소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교역자와 교사의 열심 부족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결석을 했을 때 직접 심방을 하는 교사는 15.92% 밖에 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부모와 신앙지도를 위한 대화를 6개월동안 한번도 나누지 못한 교사가 61%였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는 1.4% 였으며,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여 기록하는 교사는 26.67% 였다(박동진 2003, 58).

교사의 열심은 어린이를 섬기는 것이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열심이 많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영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을 알 수 있다. 박동진의 2003년 교회학교 교사 인적 현황 조사 연구에 의하면 날마다 성경책을 규칙적으로 읽는 교사는 40.5% 이며 읽지 않거나 때때로 답답한 경우에 만 읽는 교사가 59.5% 였다. 같은 연구에서 교사의 기도 생활에서는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교사는 29.8% 이며, 그 중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사는 12.84% 이며, 하루에 10분 이내로 기도하는 교사가 32.24%이며,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교사가 33.92% 로 나타났다.

교사의 예배 참석률 현황은 주일예배 및 수요 예배까지 모두 참석하는 교사는 28.95% 이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교사는 31.91%이며, 그 외는 정기 예배에 자주 결석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가 Q.T.를 매일 꼭 하는 교사는 21.9%, 가끔 하는 교사는 35.4%, Q.T.를 하지 않는 교사는 20.2% 였다(2003, 56). 교회 인적 현황 연구에 나타난 교사의 신앙생활 측면을 정리해보면 성경을 읽지 않거나 답답 할 때만 읽는 교사가 절반이상이며, 교사의 70%가 매일 기도를 하지 않고, 교사들의 70%가 정기 예배에 자주 결석을 하거나 한주간 동안 낮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을 맡은 교사의 신앙 생활에서 거의 영성의 부재를 예견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아 진다. 따라서 교회 교육의 승패는 교사의 질 즉 교사의 열심과 영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와 세속화, 재적 교인 수의 감소 주일학교 붕괴 그리고 시대 역행적 발상이나 도덕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전도 문이 막히는 상황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최윤식과 최현식 2015, 53). 교회의 성장은 다음세대 교육에 좌우되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교사의 영적 침체와 주일학교의

붕괴는 조속한 고령화로 교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를 파국의 지경에 이르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교육부서의 전체적 감소를 알 수 있는데 예장통합은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치부는 전년보다 약 4,000명(6.8%) 감소했으며 중고등부도 약 1만 5,000명(9.1%) 줄어 들었으며, 예장 합신도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 유치부, 유초등부가 3.6% 감소했으며, 중 고등부는 4.1% 줄었다고 한다(2015, 52).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 재적 교인수가 감소 상태를 보이며 교회의 고령화가 되어 가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일보 2014.09.29).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사라지거나 기독교규모가 축소된 일은 없었으며, 기회는 이동하였을 뿐 더 커져 가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는 몰락한 유럽 교회와 몰락한 미국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초대형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최윤식과 최현식 2017, 108).

우리에게 마음대로 주일학교를 문단을 권리는 주지는 않으셨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며, 한 명도 없으면 나가서 한 명을 전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2017, 211). 한국교회 교육 부서를 맡은 사역 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영성을 사모하는 신앙과 맡은 자의 본분인 충성을 위하여 열심을 회복하는 것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한국교회 교사의 영성과 열심 부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각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은 교사의 영성 훈련과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교사교육도 배제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현황 분석과 평가

비둘기 유치원의 원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하여 현재 비둘기 유치원의 기독교 교육의 부재에 대한 현실에 대하여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을 것이며, 본연구가 어린이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비둘기 유치원과 한국사회에 생명의 빛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책을 간구하고자 한다.

기독교 교육과정 부재

비둘기 유치원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불모지이다. 기독교 교육 현장이란 단순히 공간적 의미로 축소될 수 없으며, 삶과 연관을 짓도록 돕는 현장을 의미한다(손원영 2002, 62).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단순히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과 연관된 지식을 심어 주는 것을 기독교 교육이라 할 수 없으며,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따른 과제 수행과 함께 익혀야 하는 모든 지식의 내용이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으로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가 예수님의 실체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가르친다 하여도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와 섭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생명과 관계없는 지식일 뿐이다. 비둘기 유치원의 교육내용과 목적은 지식전달이 목적이며, 기독교 교육과는 상관없는 인간교육이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작되는 신앙교육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이상이라고 한다(Bueggemann 1998, 8). 하지만 비둘기 유치원 교육과정은 성서에 기초하지 않았으므로 기독교 교육 내용이 없다. 한국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가수준의 만3세부터 5세까지 공통교육으로 누리 교육 과정이라는 유아교육 과정과 유치원의 특성화 교육이 전부이다. 이러한 누리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에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성 교육도 포함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신앙 인격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독교교육은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것이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비둘기 유치원 건물을 관인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어린이 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린이 기독교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서양 선교사들의 매일

학교로부터 비롯하여 전국에 주일학교 즉 어린이 기독교교육 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상황을 상기하며,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부모역할의 부재

비둘기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가 많으므로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없으면 원장과 원감이 기독교인 이므로 유치원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은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공교육기관의 종교 교육에 대한 법령은 많은 제한 점을 두고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둘기 유치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은 물론이며, 부모의 역할은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가정과 교육기관이 서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교육 신학자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는 1657년 ‘모친학교’를 도입하여 아동들의 교육에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부모교육의 기초를 세웠다(이영석 1997, 19). 이것은 어머니를 통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비둘기 유치원은 신앙교육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하여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역할 상담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비둘기 유치원의 부모들은 대부분이 불신가정이므로 가정과 연계된 기독교 신앙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을 위한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은 거의 부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초기 주일학교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당시 교회와 가정은 상호 협력 관계가 되어, 나라를 세우는 민족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아이들을 통하여 부모가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다. 특히 기독교 가정은 교회와 동반자로서 수행해야 될 공동의 목적들 예배 인간관계의 학습, 전도,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임창복 2002, 59).

비둘기 유치원의 가정과 연계된 교육으로는 유아들의 인성교육과 학습진도에 국한되어 있으며, 기독교 신앙교육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교육관련 법령아래에서는 관할 관청의 인가체제를 벗어나서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매일 학교처럼 독립된 어린이 교회 체제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낀다.

기독교 교육교사 부재

비둘기 유치원에는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하다. 전체 교사 7명중 기독교 신앙인은 교사 2명뿐이므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독교의 교육적 사명감은 없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교적 사명감은 더욱 기대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관인 유치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은 불가능 한 제도적 내용을 역행하거나 강제성을 띠게 될 경우 교사들은 관계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현직 교사들에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모든 교사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교육을 한 부분 즉 성경동화 정도라도 가능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청년의 수가 감소됨으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젊은 교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비둘기 유치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뒤부터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기독교인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둘기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교사의 신앙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요약 및 선교적 함의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세대 교육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산업화로 교회 교육의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결혼인구 감소와 출생율 저하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수가 줄어 들고 기독교 교인의 수가 해마다 감소되며 교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다음세대 교육기관의 부실이 파생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 부모들도 교회교육보다 학교성적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가정에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부모역할이 부진한 편이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모든 일반 교육 내용이 성서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과 연관된 재해석으로 이루어 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둘기 유치원 역시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학부모들의 특정종교에 대한 거부로 기독교 교육과정이 부재 중이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와 비둘기 유치원은 어린이 전도의 불모지가 되어 가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타 문화권의 선교 대상자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과 주일학교 부흥을 일으킨 신앙 선배들의 열정을 되새기며, 어린이기독교 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 8 장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방안

본 장에서 필자는 비둘기 유치원에서 어린이 기독교교육의 성경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둘기유치원 기독교 교육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평가에 의하면 비둘기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기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며 비둘기 유치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현행 법 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둘기 유치원은 울산 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이므로 한국정부의 특정종교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재제하는 법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아교육 기관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로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여 필자가 운영하는 유아교육 기관은 물론이며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많은 유아 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소망한다.

먼저 한국사회 제도권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기독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관인유치원 설립자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비둘기 유치원’ 인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하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용이하게 기독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 대안 학교의 성격을 띤 ‘어린이 선교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비둘기 유치원의 현황 분석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저조하여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의 기독교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설립한 선교원의 학부모를 통하여 선교원과 가정이 연계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어린이 기독교 교육 현황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한국교회내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역지침과 교회 교육기관 운영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될 수 없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어린이 선교원 설립

필자는 비둘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 장소에서 어린이들의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제도권 유아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원’설립을 방안으로 제안하면서 ‘어린이 선교원’의 필요성과 설립규정과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침, 교육방법 그리고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교사자격 등 선교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선교원 설립의 필요성

어린이 선교원은 교회 조직내의 한 부서이며 어린이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 주변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주일학교를 평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인 복음사역의 의무를 다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로서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조직이며 성경과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 교육과 어린이 선교현장 정신에 따라 어린이 선교로 양육되는 기독교 조기선교 교육 기관이며 어린이 목회의 사역장소이다(리강무 1980, 85).

한국사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상황적 관점에서 다음세대는 기성세대에 대비하여 볼 때 타 문화권의 선교 대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주일날 한 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모였고 예수님께서도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서 ‘어린이 선교원’은 교회의 주일 학교를 평일에도 연장하여 운영되는 교회학교이므로 자유롭게 소신껏 어린이 복음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하였으며 어린이를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였고 예수그리스도의 각별한 관심사이며 유언으로 간곡히 부탁하신 유언적 명령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 선교원’은 절대 필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선교적 관점은 하나님나라의 회복의 과정이며, 제자도의 실천이며, 씨 뿌리는 농사와 같다고 하였다. 어린이 선교원은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는 교육을 수단으로 하였으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였으며,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였고, 전도에 힘쓰고 선교의 선봉이 되는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다. 어린이 선교원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도전적 선교 활동을 오늘날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 사역의 장소로서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사회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영향력으로 공식적으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성경을 교과서로 하는 확실한 어린이 복음사역이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 하는 것이며, 다음세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한국교회의 성장과 회복의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어린이 선교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은 ‘어린이 선교원’의 기독교교육을 지향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발달을 위하여 ‘어린이 선교원’ 교육을 선호하고 자원할 것을 부탁드린다.

어린이 선교원 설립의 법적 근거와 설립 규정

‘어린이 선교원’은 관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이 없으므로 원아들의 소속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교육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어린이 종교교육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선교원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와 설립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교육목표와 기독교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원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선교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을 모색하고 설립기관의 이름은 ‘비둘기 어린이 선교원’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선교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내용은 종교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선교원은 한국 헌법 즉 기본법 제20조 종교법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 되는 종교단체의 종교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로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리강무 1980, 87).

이것은 종교의 자유 보장범위는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 선교원은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라는 법적 명제에 동반되는 종교적 행위 즉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신앙 양심의 자유와, 헌금의 자유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와 같은 법적 근거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형 교회와 개인이 운영하는 선교원은 약 50개 정도 존립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선교 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규정을 살펴보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필자가 ‘비둘기 어린이 선교원’ 원아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선교원을 설립하고 운영 할 때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세계어린이 선교원 총회’의 어린이 선교원 설립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80, 89).

- 1) 교회 안에 어린이 선교 원이므로 교회전체의 한 부서로써 설립되어야 한다
- 2) 당회의 승락을 얻어서 어린이 목회자를 정식으로 교회가 청빙하고 어린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교육법에 저촉됨이 없이 종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 3) 어린이 선교원은 어린이 목회에 다소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 4) 당회로부터 청빙 된 선교원장은 어린이 목회자로서 ‘원목’이라는 직급을 가지게 되며 원목은 즉시 ‘세계어린이 선교원 총회’에서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어린이 선교원 설립 인가서와 어린이 선교 현장 및 어린이 목회자 강령등을 인수한다 제출 서류는 ‘대한 기독교 연합회 어린이 선교회’ 소정의 양식에 맞는 신청서와 보증서 각 1통과 목사 재직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사이비 이단 및 유사종교 단체에게는 ‘어린이 선교원’ 설립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 6) 어린이 선교원은 어린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의 다른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7) 어린이 목회자는 부분 또는 전문 목회자로서 교회의 당회 산하에 소속되어야 한다.

8) 모든 경영 관리 행정 등은 당회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9) 어린이 선교원의 목회자 즉 원목은 소정의 신학과정을 이수한 어린이 목회자이며 성직자이어야 한다

10) 어떤 명목의 금품의 납부금도 허용되지 않으며 어린이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에 의하여 교회의 재정에 의해 귀속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 어린이 선교원의 설립규정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자격요건과 시설 기준 그리고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결과 종전에 선교원 원목으로서 6년간의 경력이 있었으며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 터득한 교육경력과 운영상의 경험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선교원 원장은 유치원과 달리 원의 목회자라는 뜻으로 원목이라고 이름하며 ‘세계어린이 선교원총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신학 공부를 마쳐야 하는 자격기준이 있다. 필자는 1980년대 초에 선교원 운영을 시작하면서 ‘한국 어린이 선교 신학교’에서 2년간 학업을 완수했으며, 현재 유아교육석사와 아동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므로 원목 자격도 충분 하다고 생각되며,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도 기존의 비둘기 유치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충분하여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위치에서 직선거리 100m가 못되는 거리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주성교회’가 현재 신축하고 있으므로 교회소속 어린이 선교원을 승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성 교회의 당회에 승락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본 연구자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 소속으로 어린이 교회를 현 위치에서 개척을 하여 본인이 당회장이 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보며, 어린이 교회는 평일은 물론이며, 주일에도 거룩하고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을 전도하는 선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생각 할 수 있다.

어린이 선교원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선교원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분명한 지표로 삼고 복음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복음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둘째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어린이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조기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목표로 한다

셋째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어린이 목회자가 어린이를 성도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어린이들을 성공적인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선교원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복음을 받은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양육하는 것이며 이것은 최고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독교 조기교육으로서 어린이 전도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최고의 선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선교원의 기독교 교육 내용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모든 교육행위는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의 핵심 주제와 교육내용은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어린이들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성경적 내용을 고려하는 교육내용으로 선정할 것이다.

비둘기 어린이 선교원의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세계어린이 선교원 총회’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근거로 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교육부가 2007년 유아교육을 위하여 제정한 ‘표준보육 과정’과 ‘누리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의사소통’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등 5개 영역을 모두 성경에서 도출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제안한다.

첫째, 은혜교육을 한다. 어린이 선교원의 기독교 교육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최고의 내용으로 한다. 은혜교육의 내용은 가장 먼저 회개와 천국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교육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회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필히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으로 본다. 둘째, 생활 교육이다 어린이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 교육을 한다 우주만물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죄와 인간에 대한 교회교육과 성령님에 대한 교육, 세상일과 천국에 대한 교육으로 삶의 질을 가르친다. 세상교육은 인성지도를 위하여 인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하지만 어린이 선교원의 신앙생활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기본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경 교육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심과 사랑을 알게 하는 성경을 교육내용의 기초로 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교육,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대한 교육, 사탄과 지옥에 대하여 성경의 내용으로 교육한다. 세상의 교육은 자연탐구에 대한 지식만 가르치지만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와 능력을 깨달으며 자연탐구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며 또한 말씀교육은 영적 건강은 물론이며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자양분이 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

넷째, 성품 교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품을 가지게 하는 성품 교육을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준하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어린이로 교육한다. 다섯째, 예술 놀이 교육이다. 찬양과 기도로 감성을 발달시키고 신체표현과 미술적 표현으로 여호와의 영성을 받아서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갖게 하고 성경적 절기를 지키며 신나는 놀이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 방침

비둘기 어린이 선교원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하여 철저히 성경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할 것으로 정하고 ‘세계어린이 선교원 총회’의 어린이 선교원의 교육 방향을 참고하여 필자가 수정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말씀 교육으로 변론과 언쟁만 무성한 교육이 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무와 책임의식을 갖게하여 삶의 모든 해답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한다. 이것은 말씀 없는 지식과 학문 그리고 말씀 없는 자녀교육과 말씀 없는 정치와 경제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한원섭 2010, 7).

둘째 영성 교육으로 예배와 기도 찬양 헌신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하는 교육방침이다. 셋째 신본주의 교육이다. 신본주의 교육이라 함은 최고의 신앙 교육방침과 교육계획을 실천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신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종교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교육방침으로 인본주의 교육이 될 수 없음을 제안하며 신본주의 교육과 인본주의 교육을 표 6과 같이 정리하며 신본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린이 선교원 교사의 자격

어린이 선교원의 교사 자격은, 교육법에 의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일반적인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어린이 목회자이므로 신분이 질적으로 다르고 배움의 과정도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유아의 기독교 전인 교육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선교원 교원자격을 ‘세계 어린이 선교원 총회’에서 정한 어린이 선교원 교사 자격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교사의 외적 자격

첫째 어린이 선교 신학을 전공 한 세례교인으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둘째 세례 이상의 신급을 소유 한 자로서 ‘세계어린이 선교회 총회’의 어린이 선교원 교원자격을 취득 한 자이어야 한다. 셋째 유치원교사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 또는 2년이상 어린이 목회 경력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신앙적 신급과 경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원 교사는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원 자격과 같은 외적인 자격 조건보다 신앙적인 자격 조건이 필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내적 자력

첫째 어린이를 사랑하는 적성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어린이 선교원 교사는 높은 학력과 실력을 겸비하여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적성이 맞아야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선교원 교사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은사를 자신에게서 발견한 자라야 한다.

둘째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며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기시던 날 “네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3번이나 물으셨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최상의 목회자상은 오직 주님 사랑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린이를 사랑할 수 없으므로 선한 목자의 반열에서 벗어나 싹군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이 목회에 사명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어린이 선교원 교사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목회자요 선교사이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희생적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어린이 선교원 총회’에서 발의된 ‘어린이 선교헌장’과 ‘어린이 목회자 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선교원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법

선교원 운영에서 필수조건으로 재정마련이 가장 많은 영향력이 될 것이므로 선교원 재정마련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현행 법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에는 전국에 일 만개 정도 설립되었던 ‘어린이 선교원’이 현재는 전국에 50개로 완전히 소멸 위기에 처하였다. 그 원인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12월 11일 유아교육법을 가결하고 이듬해 2004년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저 소득층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시작하게 되자 선교원의 많은 학부모들이 선교원을 떠나 관인 유치원으로 자녀를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이런 현상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무상보육과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자 한국의 선교원은 대형교회 부설 선교원으로서 교회에서 지원이 충분한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취원 원아들이 없어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여 폐원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 선교원 원아들은 어린이 교회 학교 어린이로서 정부의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 법을 살펴본 결과 무상 교육비 지원은 아니지만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의 공동 지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시행되는 ‘가정 양육수당 법’과 ‘아동수당 법’이었다.

2012년 한국정부는 ‘영 유아 가정 양육수당 법’을 제정하고 영유아 보육법 34조 제2의 1항에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 유아 양육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 복지부 20187, 344-47)고 명시하였다. 또한 2017년 현정부는 저 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동수당 법’(시행 2018년 9월 1일, 법률 제 15539호, 2018년 3월 27일 제정)을 추가로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이것은 0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현정부 출범의 공약 이었으며 대상은 만6세미만 0세부터 71개월까지 어린이로 정하였다(더불어민주당 2017, 320-21). 이 법은 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 84개월까지로 대상의 폭을 넓이며, 오늘날 한국사회 이혼율 증가를 감안하여 조부모가 양육하는 영유 아들과 장애아동도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당 법은 선교원의 재원을 마련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조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므로 선교원 어린이들은 ‘가정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월 평균 20만원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필자가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선교원 운영은 학부모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금이라고 해서 금액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게 하지 않고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와 당회에서 월정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정 헌금이 무상교육 체제에 해당되지 않는 선교원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양육 수당’을 받게 되면 학부모에게는 부담 없는 헌금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교원 원아들을 유치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교회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은 ‘가정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의 활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 선교원’은 무조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선교원 설립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안내로 한국교회 일 만개 ‘어린이 선교원’을 회복하도록 하여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방안으로 삼고 다음세대 교육을 통한 한국초기 교회 부흥의 불길을 다시 지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아동수당 내역은 도시지역 일반 가정의 아동은 가정 양육 수당과 일반 아동 양육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농어촌 양육 수당과 가정양육 수당을 받게 되며 장애 아동은 장애아동 양육 수당과 가정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아동수당 현황

연령 (개월)	전체 가정 양육수당 (원)	농어촌 아동 양육 수당 (원)	도시 일반 아동 양육 수당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원)
0 - 11	200,000	200,000	100,000	200,000
12 - 23	150,000	177,000	100,000	200,000
24 - 35	100,000	156,000	100,000	200,000
36개월- 47개월	100,000	129,000	100,000	100,000
48개월- 84개월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선교원 어린이 가정의 부모역할 강화

본 장에서는 필자가 설립한 선교원 어린이들에게 가정과 서로 연계하는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부모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앙지도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

어린이 기독교 신앙 교육은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 교육 즉 교회의 책임으로만 국한할 수 없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육을 평일에도 연장할 수 있는 ‘어린이 선교원’ 설립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선교원 교육이 가정과 연계되기 위하여 부모의 역할지도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기독교 신앙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본 장에서 성경적 교육관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부모역할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자로서 부모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역할에 대하여 논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어린이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부모역할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모역할 교육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물론이며 장년층의 교회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린이 선교원 설립과 부모역할 교육은 초기 한국교회 부흥의 회복과 선교의 최전방을 점령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대리권 자로서 부모역할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대리권 자로 부모를 선택하셔서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말씀으로 알려 주셨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육신의 부모가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경솔하게 대 할 수 없다는 것과, 공의와 진리 즉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됨을 분명히 밝히셨으며, 부모는 삶으로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인성 즉 인내와 희생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자녀가 배울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다.

루터(Martin Luther)는 성경과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통하여 부모야 말로 최고의 교육적 권위와 책임을 성직자의 권한보다 우선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며 가정을 모든 교육의 시작인 가장 영향력 있고 비중 있는 교육의 장으로 보았다(박순옥 2012, 27). 또한

호레이스부쉬넬(Horace Bushnell)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리적 권위(vicgerent authority)’를 받았다고 한다(이주영 2005, 34).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 왕의 직무와 선지자적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며 부모의 위치는 교사의 역할과 삶의 지도자적 역할과 교정적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참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 말과 혀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치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 자신을 사용하라는 뜻이며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 자로서 항상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구속의 은혜와 언약을 전달하는 교육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복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국가와 교회가 교육을 보충할 수는 있으나 어린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교육은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Wilds 1942, 294).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뜻이다.

칼빈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부모의 신앙고백을 통해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여기며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김태원 1992, 83). 페스탈로찌는 1801년 “개르트 루트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나?”라는 저서에서 인간 형성의 기초 즉, 사랑, 신뢰, 감사, 의무의 감정은 가정에서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길러지므로 아동이 가정의 영향을 벗어나기 전에 부모와 자연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도덕교육 및 종교교육 등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강은숙 2007, 28). 이처럼 기독교 교육을 위한 부모역할은 세상에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가정에서 비롯되는 말씀의 교육은 다음세대를 살리는 교육이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절대명령이라고 본다.

회복자로서 부모역할

본 장에서는 자녀양육에서 회복자로서의 부모역할을 깊이 인지하게 하고 먼저 자녀를 창조 당시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것과 자녀가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위한 영성회복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죄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과 창조 당시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거룩성과 사랑과 진리를 사모하는 형상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목적에 맞게 부여하신 능력과 성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부모의 역할은 죄성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인간은 독특한 직무와 역할을 가진다고 한다.

첫째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역할이며, 둘째는 제사장적 기능으로 중보의 역할로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회복을 반영하고 갈등 해결과 치료자의 역할을 말한다 그리고 셋째 역할은 왕적 역할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사용과 적용이다(정정숙 1997, 238).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부모의 역할은 위의 세가지 직무와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것이 자녀에게 전수되어 자녀가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과 왕의 권위와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회복자로서의 부모역할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우주의 절묘한 질서를 알게 하고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익히게 하면, 어린이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뢰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분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어린 아이들이 알게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우는 것이 자녀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이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두는 것은 부모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며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부름 받았으며, 자녀 양육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떠날 수 있는 최고의 영성 훈련 여정이라고(Tomas 2015, 22-24)한다. 이처럼 부모는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삶을 통하여 자녀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회복케 하는 역할을 부모의 사명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육’(Educare)이라는 용어로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의 뜻을 포함한 합성어로 사용되며,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의 차원을 넘어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우는 전인적인 지식과 인성을 가르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신약에서는 ‘양육’이라 뜻으로, 헬라어 ‘파이듀오’(Paideuo)와 ‘파이데이아’(Paideia)가 사용되며 이 용어는 어린아이(a little child)를 의미하는 명사로부터 왔으며 주로 어린아이를 기르는 의미로 사용된다(한국기독교 교육학회 장화선 2002, 177).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파이듀오’(Paideuo)와 ‘파이데이아’(Paideia) 보다 신앙적 보육(Christian Educare)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는 지식과 신앙인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가르치라’(Teach), ‘양육하라’(Nurtuer), ‘훈계’(Admomiition), ‘교육’(Education) 과 같은 내용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지는 성경 말씀에 준 하는 자녀양육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 6)

이것은 어린이들의 양육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파이듀오’(Paideuo)와 ‘파이데이아’(Paideia)의 양육이나 단순한 ‘보육(Educare)’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하여 양육하기를 바라는 ‘성경적 교육(Biblical Education)’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볼 수 있으며,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을 회복할 것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자녀 양육은 성경적 부모역할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을 회복하고 창조 당시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과 밀착되는 관계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밀착되기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을 아래의 성경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삿 13:12)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부모를 원하신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 기도 외에 아무 노력도 없다면 하나님의 가르치라는 명령은 무의미 해진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신 것도 무의미 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르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훈육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 20: 21)

세배대의 아내는 생계를 위하여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 했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쾌히 허락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으며, 아들이 천국에서도 최대한 주님과 가까운 관계에 두고 싶었던 적극적인 믿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부모의 믿음의 자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훈련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여야 언약의 자손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7)

노르만 하프(Norman E. Harper)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태어난 ‘언약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Harper 1981, 38). 회복자로서 부모역할의 성경적 원리는 자녀를 창조세계에 적응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 당시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을 비롯하여 사랑과 헌신의 성품 그리고 영원성과 영생의 진리를 사모하는 거룩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가능한 존재성을 회복시켜서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역할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은 동역자로서 씨 뿌리는 사람과 물주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를 창조 하셨고 자라게 하시고 부모는 잘 자랄 수 있게 물을 주며 보살피주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6-9)

부모의 성경적 이해는 자녀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는 동역자이며 중재자인 것이다. 17세기 교육신학자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는 현대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기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초의 교육기관을 가정으로 보아 어머니가 최초의 교육자가 되고 어머니 무릎을 최초의 학교라 여겼다. 그는 1657년 ‘모친 학교’라는 개념을 도입시켜 아동들의 교육에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부모교육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되었다(이영석 1997, 53).

17세기의 부모교육 학자 가운데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로크(Locke)는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 초기의 경험에 의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교육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교육을 더 중시했으며 첫 번째 양육 장소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한 후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1997, 56).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신앙 조기교육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백지와 같은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려주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적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하나님께 자녀들을 묶어 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특별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부모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자녀의 신앙적 자신감과 결부된다고 한다(오인숙 2009, 236). 그것은 부모의 신앙적 개념이 언어적 환경과 성경적 이해의 강도를 달라지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순종적 삶이 어린이의 몸과 맘에 당연한 것으로 인지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신앙적 개념의 강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볼 때, 부모가 어린이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생활방식과 태도가 자녀의 신앙적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의 신앙적 개념이 어린이의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역할은 예수님의 교육 목적에 부응하는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가르쳤으며, 예수님은 배우는 사람들의 전인적 변화를 추구하셨고 이것을 위하여 그들의 자유의지에 강력히 호소하였다(Benson 1950, 268) 부모역할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삶에 관해서 거룩성을 가르쳐서 전인적인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정정숙은 이러한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정은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로서 특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정정숙 1997, 365)고 주장한다.

부모는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목적을 알게 하는 복음적 분위기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병렬은 그의 저서에서 신앙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신 어머니에 대하여 간절하게 회고한다.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다.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이 고스란히 어린 나를 키우는데 자양분이 되었다 오늘날의 인생과 신앙의 결정적 토대는

틀림없이 그 시절에 형성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병렬 2018, 76)

칼빈의 기독교 교육의 축은 두 가지로서 구원교육과 영광교육이다 이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김태원 1992, 84).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역할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 목적은 자녀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제1문답)을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맞는 부모역할이 될 것이다.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는 성경번역자이며 신학자이고 교육개혁자로서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그의 교육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의 형태를 신학적 입장에서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적나라’와 겹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로 구분 지었으며 가정은 ‘가정의 나라’ 라고 표현하면서 가정의 지위를 별도로 구분지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머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위에서 다스리라는 과제를 위탁 받았으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가정에서 가정의 나라에 지위를 위탁 받은 자로서 자녀에게 세상적인 권한과 영적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책임자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지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손규태 2004, 182).

루터는 부모의 역할이 성직자의 역할을 능가하는 역할이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겐글과 벤슨 1992, 151). 루터의 교육론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양육을 위탁 받은 자로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어머니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따라서 부모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며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한 후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적의 기독교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정희영 2007, 56).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 받아 감당해야 할 동역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집과 밭으로 선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고전 3:9)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성경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부모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됨을 인지하고 어린이의 기도생활과 말씀의 이해와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교육을 소홀함 없이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영광을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 재능과 모략이며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 다르게 심어주셨다. 부모는 그것을 개발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하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할 구성원으로 돌려 드려야 할 자녀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교육을 더 중시했으며 첫 번째 양육 장소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한 후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개발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이영석 1997, 56).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독특한 성격 파악이라 함은 어린이의 타고난 재능발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달란트를 찾아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 빛나게 사용하는 지혜를 일러주고, 익힐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자녀의 달란트는 더욱 계발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타고 났어도 계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으며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호레스 부쉬넬은 인간은 이미 세상에 올 때 어른들이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한 원칙의 씨’가 있다고 보며 그것은 무한한 영적 가능성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므로 ‘거룩한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부모의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한다(고용수 1992, 61) 부쉬넬의 ‘거룩한 원칙의 씨앗’이라는 의미와 부모역할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배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향하여 과일과 채소를 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곳에 그러한 능력을 심어놓으셨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거룩한 원칙의 씨앗’은 자녀를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목적에 맞게 부여하신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거룩한 원칙의 씨앗’의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은사이며 달란트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성장시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이다.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정점이며 강점이고 달란트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강준민 2010, 9).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잠재력이며 무한한 가능성이며,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달란트는 성령 충만할 때 더욱 빛이 나며 자녀의 재능과 은사에 사랑을 담아서 섬길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사명과 열정을 발견하게 된다(2010, 141).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이 달란트를 충성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자녀의 달란트 발견과 계발을 위하여 학습시켜야 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달란트는 가장 빛을 발 할 수 있게 때문이다(2010, 143).

어린이 발달단계에 적합한 기독교 교육

어린이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발달 도상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고츠키(Vygotsky)의 어린이 인지 발달 이론은 어린이 발달근접 지대(ZPD: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를 말한다. 이는 유아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분량 즉 발달과제의 수행 능력에서 부모와 교사 또는 자신보다 좀 더 유능한 또래나 형제들의 도움을 통하여 발달과제의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가능성의 범위를 말한다 이것은 지도자의 비계(Scaffolding) 역할을 통하여 인지적 향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 발달에 있어서 초기 발달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부모로부터 ZPD 영역이 향상된다고 한다(Hyun 1998, 10).

비고츠키(Vygotsky)는 유아의 인지적 발달에 대한 가능성의 범위에 개인차가 있지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안내하고 도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말하며 유아들의 가능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교사와 부모는 훌륭한 비계역할을 하여야 하고 발달에 적합한 실재를 제공하되 개별적 연령적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환경으로서 교수매체와 교수자의 역할을 ZPD의 변수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의

이해도와 선호도 그리고 지력과 심력의 발달을 고려한 신앙지도는 어린이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성서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 신앙 교육은 성서 자체를 가르치는 성서교육(Bible Education)이 아니라 성서를 기초로하여 신앙성장을 도모하는 성서적 교육(Biblical Education)이라 할 수 있다(박원호 1999, 230). 성서적 교육은 어린이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과 사고능력 그리고 정서력과 절대 무관하지 않으므로 효율적 기독교교육을 위하여 어린이 발달을 고려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어린이의 생득적 발달과 신앙지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발달에 적합한 신앙지도는 어린이에게 효율적인 신앙발달을 가져다 줄 것이고, 기독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 공과 책들은 계단 공과로서 이는 교육에 있어서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과 구조를 가지며 다른 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1999, 47). 어린이 발달에 적합한 신앙지도로 어린이의 기독교 교육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의 생득적 발달과 신앙발달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어린이 발달에 적합한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 즉 비둘기 유치원 유아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영유아의 신앙발달 단계에 국한지어 살펴보고자, 아동 발달심리학 측면에서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과 프로이드(Freud)의 정신발달 그리고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이론을 토대로 유아기의 종합적 발달 특성을 도출해 내고, 파울러(Fowler)의 신앙발달에 대한 견해와 연관지어 어린이 신앙발달을 정의하고자 한다. 영, 유아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 그리고 정서 발달 등 생득적 발달에 관련하여서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다. 또한 모든 인간발달은 앓을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고 다음에 걸을 수 있듯이, 웅알이를 하고 나서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문장을 쓰게 된다. 또한 생후 일 년 내의 영아기에는 신체적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즉 키가 배로 자라고 몸무게가 2배로 늘어나기도 하는 등 신체적 발달이 활발하며 생후 일 년이 지난 후에는 사고능력과 정서적 능력 등의 심력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로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차츰 사회적 사고를 할 수 있듯이 모든 연구에서 인간 발달은 순서와 단계가 있으며, 단계마다 특징이 있고, 발달은 인생 초기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것에 공통된 주장이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인간발달의 초기시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영아기부터 발달 단계를 구분 짓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 연구자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태아기부터 어린이 신앙발달의 초기시점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태아기 발달특성과 신앙지도

어린이 신앙발달의 시작점은 태아에서부터 시작 되는것이라고 분명히 말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심신 발달 역시 신앙발달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는 인간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전인적인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근래에는 태아에 대한 많은 연구로 태교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태아의 감성과 지능의 발달이 증명되면서 태아에게도 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태아의 인격과 본능적 욕구는 잉태된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에 따라 형성되며, 임신 6개월 후 태아가 의식하기 시작된다는 것은 생리학적, 신경학적, 심리학적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위드상담 연구소 2018.08.28). 태생 심리학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자폐증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국어 프랑스 말에는 반응이 없던 아이가 자신도 모르고 배운 적이 없는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추적한 결과 아이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무역 회사에 근무하였고 매일 영어만 사용했던 것을 알아내고 태중 경험의 절대성을 증명하는 사례도 있다(지쓰코스세틱 1994, 71-72).

많은 연구를 통하여 태아기의 신체발달은 물론이며, 뇌와 정서의 발달적 특징 역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아는 임신 8주이전에는 배아기라하고 8주차부터 출생까지를 태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8주부터 신경계가 형성을 시작하고 뇌 발달이 시작되어 일정 기간이 되면 외부의 소리도 듣게 되며 반응에 대한 기억능력을 형성한다고 한다 특히 4개월이 되면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적으로 태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데 이것은 생후 반사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또한 태아가 8개월이 되면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이 발달되며, 이때 기억한 부모의 음성을 출생 후에 반응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한 영적 삶을 통하여 태아에게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을 알게 해준다. 태아도 하나님의 계획된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생명이요 인격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렘 1:5)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 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 지지 못하였나이다. 내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 되었나이다. (시편 139:13-16)

코메니우스(Comenius)는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서 어린이는 원죄 외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이며 희생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존재로 보고 신앙은 모태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앙심도 어릴 때 심어 주어야 그 믿음에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다고 했다(1970, 160).

초이스 태아연구소 소장인 김재만 목사는 임신 중 산모의 영적 충만한 신앙생활은 아기의 뇌와 유전자 형성에 긍정적 자극을 주며 영성의 뿌리가 된다고 한다. 태아에 대하여 수정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과 태생심리학의 사례와 태내에서의 뇌와 유전자 형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신앙지도가 태아에서부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어린이 신앙교육의 시작점을 태교에서부터라고 인지해야 할 것은 물론이며 부모는 태아가 수태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거룩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신앙적 태교를 강조하는 것은 태아기 때부터 인간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전은 선천적 기질과 능력과 성품을 결정지어 준다고 한다면 환경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태아가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즉 성경적으로 합당한 신앙생활로서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하는 태교를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비형식적이고 잠재적인 학습이 되어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요인을 <표7>과 같이 정리하여 유전과 환경의 상호간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7>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요인
(이상욱 2006, 359)

유전영역	자연 (nature)	생득적 지배	성숙요인	결정적 고정적	토대 기본	과거사건	신의 영역	운명
↕ 환경영역	양육 (nurture)	경험의 영향	학습요인	유동적 변화가능	내용	현재와 미 래의 사건	인간 영역	도전

영아기(0세-3세) 발달특성과 신앙지도

영아기의 생득적 발달과 신앙발달의 연관성을 알기 위하여 영아기의 발달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피아제(Jean Piaget, 1896년-1980년)는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 이론에서 영아기를 0세에서 3세까지를 인지 발달의 첫 단계로 감각 운동기라고 명명하여 모든 것을 오 감각을 통하여 세상을 인지(Cognition)한다고 하였으며(장혜순외 2011, 29),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통하여 신뢰적 균형감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환경에 의존할 만한지 감각을 축적한다고 한다(임재택과 박재환 2001, 43). 영아는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여러 가지 반복적 행동과 환경적 경험들을 통하여 인지가 발달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어린이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기독교적 환경과 부모를 통한 신앙적 경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게 되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인간의 정신발달을 연구하여 영아기에는 모든 본능적 쾌감을 느끼는 리비도(libido)의 위치를 입에 집중된다고 보며 모든 것을 입을 통하여 느끼며 인지하기를 원하는 구강기라고 명명하였고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능력이 길러지는 시작이라고 한다. 특히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요소들은 차후 인간의 정신세계를 대부분이 차지하며 성격형성과 행동을 결정 짓는다고 한다.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 1902년~1994년)은 ‘심리 사회적 발달’을 연구하여 인간발달을 8단계로 나누었으며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긍정적 사회성 형성과 부정적 갈등을 설명한다. 그는 초기단계인 영아기에는 주양육자로부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아 신뢰감과 불신감을 형성한다고 한다(이영석 2004, 96). 또한 에릭슨은 말하기를 영아들은 어른들 속에서 신뢰감과 불신감

사이에서 갈등을 벗어나 점차적으로 신앙으로 형성되는 가장 최초의 바램(Hope)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정갑순 2005, 55).

발달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인생 초기 영아기에는 스스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사랑과 적극적인 반응을 경험으로 무의식 속에 축적된 감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적 덕목이 되므로 차후 신앙적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길러지는 시기라고 본다. 특히 프로이드의 구강기 이론과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이론으로 보아 어머니가 영아를 젖먹이면서 들려주는 기도 소리와 찬송가 그리고 말씀 암송 같은 성령 충만한 모습과 성품은 아기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적 신앙적 요소가 될 것이며, 차후 어린이의 정신세계를 대부분이 차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삶의 방식을 결정 짓는 것이 가능 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반대로 영아기에 경험해야 할 신뢰와 사랑의 경험과 영적으로 충만한 어머니의 따뜻한 기억이 저장되지 않으면 후일 스스로 무의식 속에 축적되지 못한 긍정적 신앙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신앙적 논리와 도덕적 판단 형태, 기독교적 가치관 형성과 같은 것들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영아기 때를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요소를 길러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신뢰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의 기초라고 본다면 영아기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영아에게 최고의 신뢰감과 자율성과 소망을 길러주는 관심과 배려와 노력이라고 하겠다.

유아기 발달특성과 신앙지도

피아제는 인지(Cognition)발달 이론에서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4세에서 학령전의 7세까지를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라 하여 감각기관의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논리적 지식을 구성한다고 한다(Gordon & Brown 2004, 14) 하지만 그들의 인지적 기능은 구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폭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한다. 그는 유아들이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며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며 어른들의 행동과 언어 등을 모방하는 시기라고 한다. 또한 전 조작기

유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 상태이며 호기심의 극대화를 이루며, 유아의 선호도는 주로 주 양육자를 모방하여 동일시 하고자 하는 시기라고 한다. 따라서 모범적인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모방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신앙적 언어사용과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는 Q.T. (Quiet Time)로 기독교적 문화를 조성하고 자기중심적인 호기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경동화와 찬양 율동은 유아기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기도생활과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참여는 모방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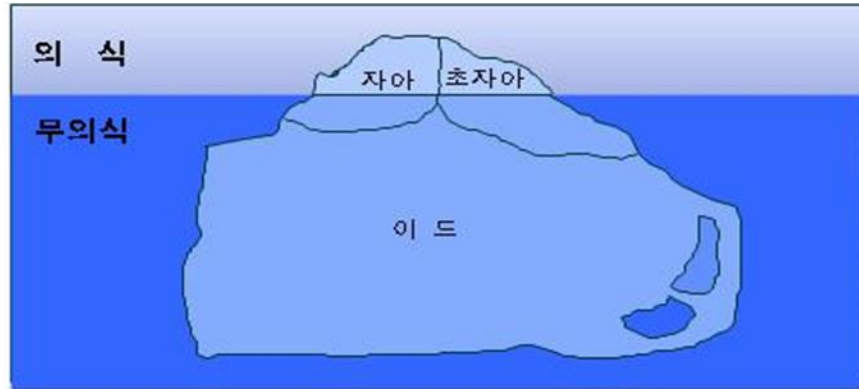
프로이드는 유아의 시기 발달 특성은 항문기를 거치며 배변을 통하여 쾌감을 느끼고, 남근기를 맞아 자기 생식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아주 본능적인 원초아(Id)의 작동이 의식 세계의 대부분이지만, 자아(ego)가 생성되는 시기라고 하였으며,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는 스스로 평정을 찾으려고 하는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무의식(Unconscious)과 함께 전의식(Preconscious)과 의식(Conscious)의 양태를 갖추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 느낌, 생각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상은 내면의 생각, 갈등, 소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시기에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축적된 무의식은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느낌, 생각 그리고 가치관 형성에 정신이라는 에너지가 되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무의식 세계와 전의식을 여전히 강조하고 의식세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 기본개념정리,” 2017.09.15).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이 그 행동과 성격을 표출시키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영아기와 유아기의 무의식 속에 기독교의 문화적 환경과 언어적 자극 그리고 이념들은 인간의 평생에 걸쳐서 의식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프로이드는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여 무의식과 전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림 3>

의식구조 및 성격구조

<http://blog.naver.com/hopeline939/221403790460>



에릭슨은 유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특성은 주 양육자로부터 신뢰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되며, 아이들은 배변기를 거치면서 자율성을 기르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근면 성실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모방 영향력의 대상이 부모에서 가족관계로 확대되는 시기이며, 배변 활동과 습식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다.

반대로 영아기에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불신감을 형성한 유아기는 자율성 대신 수치심을 갖게 되며, 주도성 대신 괜한 죄책감을 가지며, 열등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주일학교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같은 공동체 생활과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발달적 특성을 가지므로 신앙적 내용과 예배의식과 의미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의미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유아기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유아의 놀이 발달에 적용하면 에릭슨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더욱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유아는 이 시기에 역할놀이로 엄마놀이, 학교놀이, 병원놀이 등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극놀이에서는 배역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와 동작이 성인의 양식을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유아는 기능놀이와 상징화 놀이에서는 막대기 하나로 총도 될 수 있고 지팡이도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아기같이 엮고 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율성과 주도적 의식의 생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어린이에게 기독교 교육은 유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경동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전달할 수 있는 시기이며 또한 기독교적 환경에서 만들어낸 가족 문화는 유아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개념을 심어주며, 주도적인 신앙 생활을 가능케 하여 신앙의 리더 십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한국속담에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며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유아기의 신앙발달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신앙의 형태를 기대할 수 없지만 부모를 모방하고 생득적인 호기심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선호하며 특별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서발달의 특성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신앙지도에 있어서 유아기를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몬테소리나 민감기 또는 흡수기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일생에 가장 많은 것을 흡수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이시기를 놓히게 되면 회생을 위한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문적 견해를 통하여 영, 유아기의 발달 특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탐색, 놀이, 호기심 등의 경험을 통하여 유아는 즐거워하고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신뢰감과 자율성, 그리고 정체성과 창의성 등 신앙의 기초능력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기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영, 유아의 효율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부모들은 이 모든 성장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게 양육해야 할 것이며 유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의식 속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야 하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어린이의 모든 발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창조 되었기 때문이다(정갑순 2005, 113). 인간의 모든 학문과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독교 신앙과 통합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함축적으로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프리벨의 “모든 학문은 기독교 신앙과 통합”이라는 표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재 구성한 것이다.

<표 8>

어린이와 하나님과 관계
(이상욱 2009, 366)

All of development. All of chrstian education. All of education.	From	God
	By	
	For	
	To	

어린이 발달 단계와 신앙지도

어린이 신앙발달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특히 파울러의 신앙 발달에 대한 연구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교육적, 목회적 사역에 새롭고도 중요한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으며(박원호 1999, 66)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신앙을 접근할 뿐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서 발달 단계를 정리하였으므로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며, 유용성은 엄청나다고 한다(1999, 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울러의 신앙 발달이론을 살펴보고 어린이의 생득적 발달이론과 연관하여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는 신학이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발달적 측면을 심리학의 인간 발달 단계와 연관하여 정의한다. 그는 일평생 약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으로 조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신앙발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박순욱 2012, 57). 파울러는 신앙의 질적 변화는 일생을 거쳐 초기 4단계와 30세 이후의 결합적 신앙의 단계와 보편적 신앙의 단계로 총 7단계로 정의하였다(Moran 1988, 157). 하지만 영유아에게 해당하는 것은 미분화 단계부터 2단계까지를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와 일치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파울러는 영아기를 스스로 신앙적 노력이 불가 한 시기이며, 절대적으로 주 양육자에게 의존하는 신앙 이전의 단계로서 신앙의 미분화 단계(Undifferentiated stage)라고 하고 이시기에 형성되는 상호성의 질, 신뢰, 자율성 희망 용기, 실패, 좌절 등은 후에 신앙발달로 오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거나 또는 모든 것을 침해하려는 위협이 된다고 한다(Fowler 1987, 199). 파울러는 인간의 영아기에는 아직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신앙이전의 단계(pre-stage)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요인이 길러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으며(Moran 1988, 156), 이러한 상태를 “신앙의 씨앗(seed faith)”의 단계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신뢰감과 자율성과 소망 등의 감정은 차후 신앙발달에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Henley 1997, 37).

이시기에 신뢰성 형성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되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신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작은 몸짓과 용알이와 감정적 표현 하나에도 적극적인 반응으로 아기의 자존감과 양육자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앨쉬(D. Aleshire)는 “용납(acceptance)과 환영(welcome)”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한다(Aleshire 1988, 115). 이시기에는 가르쳐서 알게하는 시기가 아니라 돌봄으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신앙발달의 다음단계는 3세에서 7세의 유아기이며 파올러는 유아기 특성을 지닌 신앙적 특성으로 직관적 투사적(Intuitive-Projective Faith) 단계로 신앙의 1단계라한다. 이 시기의 유아들의 사고는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이해 가능한 직관적 앎이며 추상적인 사고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님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인지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선형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즉 신인 동형론적 형태로 이해한다는 것이다(Moran 1988, 159).

신앙 1단계는 가르치고 배우는 유치부의 시기이며 전 단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신앙적 요인들을 상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경 말씀 자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중심 이야기(mast story)를 통하여 성서적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힘써야 한다(박원호 1999, 260). 또한 교회와 부모는 유아세례를 베풀고 어린이들의 신앙적 성장을 위하여 책임을 인지하고 합당한 성도로서 섬겨야 할 것이다.

파올러의 신앙 2단계(Mythical -Literal Faith)는 7세부터 12세까지이며 유아기와 아동기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파올러는 2단계 초기부터 신앙, 관습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가족을 비롯하여 공동체에 소속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시기이므로 전통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Fowler 1996, 143).

이 시기의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차츰 객관적인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신앙적 경험의 통일성을 갖게 해주어 성경의 내용과 기독교적 의식을 성실하게 내면화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 파울러의 신앙 발달과의 연관성은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0세-1세-Sensori Moter)는 파울러의 신앙 미분화 단계와 연관되며, 파울러의 신앙발달 1단계는 피아제의 전조작기(4세-7세 Preoperational)와 연관되며, 그리고 파울러의 신앙발달 2단계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7세-12세Concrete opration)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박원호 1999, 109).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수방법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른 방법과 내용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지도자 들이며, 이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가치규범으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보려고 했던 인물들이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논쟁적 성격을 띤 변증적 언어를 사용하셨다. 둘째는 일반 성도들로서 예수께 이적을 바라고 메시아에 대한 논리적 증거를 찾으려 하는 이들에게 이적과 기사 그리고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셋째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감추셨던 하나님나라의 비밀과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의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셨다(Sherill 1994, 86-87). 이처럼 예수께서는 각 사람의 기질에 맞게 교수법을 달리 하신 것과 이상과 같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신앙발달단계와 어린이의 생득적 발달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신앙지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어린이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신앙발달의 연관성을 <표 9>과 같이 정리하여 발달에 적합한 신앙지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9>

연령별발달 특성과 신앙발달

연령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신앙발달	기독교교육 내용
태아기 (수태 -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주- 뇌발달 시작 ·4개월-생후 반사능력의 기초가 되는 움직임시작 ·8개월-기억 형성, 급속한 두뇌 발달, 소리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신앙적 반응의 기초능력 형성 ·태중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는 능력 배양 ·영성의 뿌리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태를 위한 기도 ·임산부의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 ·태중아기와 Q.T. 및 신앙적 대화 ·태아 축복기도
영아기 (0세-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각운동기, 환경탐색 ·신뢰감 불신감 형성 ·무의식 내 잠재능력 축적 ·자율성과 수치심 형성 ·애착 형성과 선호도 형성 ·모방과 반복놀이, 상징화 ·30개월-그림책 내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앙의 기초덕목 발달 ·신앙적 신뢰성 형성 ·12개월-기도, 찬송, 모방 ·30개월-성경동화 이해 및 선호 ·의존적 모방적 신앙 ·유아세례를 통하여 부모와 교회는아기에 대한 신앙적 책임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모범적 신앙 생활로 모델역할 ·기독교적 환경과 문화 조성 ·예배와 기도 절기의식에 참여로 신앙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성경 그림 동화지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반복학습 하여 무의식에 축적되게 한다.
유아기 (4세-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에 대하여 구체적 인지능력 형성 ·상황에 대하여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객관적 사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해가 가능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사탄의 개념과 죄의 속성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와 성경말씀과 기도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한다. ·자기중심적 하나님관계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을

	<p>발전되는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적 잠재능력 형성 ·사회 문화적 지식 형성 ·발달 근접지대(Z.P.D.)형성 ·도덕적 판단력 형성 ·환경의 지배적 영향받음 ·공동체 적응 가능 ·역할 놀이와 기능 놀이가능 ·그림의 애용 이해 	<p>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주도적인 기도와 찬양이 가능하며 예배의 개념도 인지된다. ·감사와 헌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신앙적 리더십이 생긴다. ·기독교 문화와 신앙적의식에 적응하며 성실한 신앙생활을 선호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형성 	<p>알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친다. ·성경적 에니메이션과 그림책으로 학습한다. ·사탄의 속성과 죄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친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
--	---	---	---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앙지도

부모가 자녀의 신앙 발달을 도우기 위해서는 대화 즉 의사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아 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태중의 아기가 8개월이면 바깥세상의 음성을 인식할 만큼 청각이 발달된다고 한다. 이것을 아는 유대의 어머니들은 태중 아기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았으며 갓난아기를 안고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아기의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정서적 교분을 나누면서 마음과 영이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관계를 만들어간다(김남철 1997, 19). 따라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 태중에서부터 성장기 동안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였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복음을 전하실 때도 수많은 언어적 소통과 영적 소통의 관계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평범하고 편안한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편안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고 한다(서병두 2010, 40).

자녀들은 부모들의 사랑과 질서 있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인자하고 사랑의 표현이 담긴 부모의 소통 가운데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부모와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통의 관계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보고 들으며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배우게 하며, 자녀의 신앙 발달에 엄청난 교육의 효과를 줄 것이다.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는 최고의 신앙지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는 어린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자녀들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과 느낌을 수용하는 대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를 경험한 아이들은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대화를 통하여 유아의 신앙발달을 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꼭 신앙지도를 위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일상적 의사소통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자녀의 말에 지속적인 공감을 형성하면 욕구불만을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또래 친구 관계에서나 놀이를 할 때도 모든 세계를 자기의 생각 틀에 붙잡아 놓는 특성 때문에 정서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며 호기심이 극도로 자극을 받게 될 때 지적 갈등으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럴 때 마다 부모는 자녀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을 해 주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바람직한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소통이 형성되면 어린이는 부모의 대단한 힘을 발견하게 되며 부모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 여기서 형성된 신뢰는 부모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연계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르웰하우어(Rewel L, Howe)는 최상의 인간관계는 대화라고 한다(이주영 2005, 52). 아름다운 대화가 존속되는 가정은 즐겁고 행복하며 그 속에서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부모와 자녀간의 바람직한 대화는 자녀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는 건전한 신앙지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대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윌리엄 옌트(William Yount)는 좋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의 몸짓이나 목소리와 외모를 통하여 듣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되면서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간에 가졌던 가치체계도 다시 재정비하게 되며 결국 행동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Yount 1999, 119). 이것은 자녀를 대하는 표정과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 그리고 부모의 진실한 신앙적 보살핌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소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안한 기독교적 가정 분위기에서 부모와 생각을 나누고 공감 되어지는 삶이 연속될 때 어린이에게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전달될 것으로 본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의 기독교교육에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주지 시켜야한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반드시 성경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예화를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여호와와 그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 하리로다, 우리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손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시 78: 1-8)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자녀들의 신앙을 더욱 다져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며 명령으로 본다. 이러한 명령의 준수를 부모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 속에서 탁월한 이야기 거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이야기와 왕들의 이야기와 예언자 그리고 어린 다윗과 다니엘, 야곱, 요셉, 예수님의 어린시절, 부자와 가난한 사람,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등의 내용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섭리를 설득시켜야한다. 그러면 윌리엄 온트의 주장처럼 어린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의식체제를 재정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슴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마음의 방해물들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Grant and Reed 1990, 7).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유아들의 상상력을 통하여 진실한 삶, 지혜로움, 사랑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윌리엄

화이트(William R. White)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풍부한 상상의 세계를 열어주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한다. 좋은 이야기는 진실을 말해주며 그 속에 인간의 경험이 녹아 있으므로 무엇이 옳은지, 좋은지, 그래서 가치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고의 이야기들은 이야기 내용 중에 자기중심적이며 욕심스러운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면면히 흐르는 정직함, 충성됨,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White 1986, 12). 이것은 즐겁고 신나는 것뿐 아니라 부모가 신앙생활 하면서 슬프고 무서웠던 내용까지도 어린아이들에게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유아가 선악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깨닫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격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스티븐은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는 언어는 단순한 칭찬이나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인관계의 승리와 개인적인 가치의식과 안정감을 고착시킨다고 한다(Kobe 1994, 303). 이처럼 부모의 바람직한 언어적 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는 물론이며 사회적 대인관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박순옥 2012, 122). 이상과 같은 자녀와의 진솔한 의사소통은 친구같은 부모가 되어, 격이 없는 대화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재자로서 자녀의 신앙 발달을 도우게 될 것이다.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지도

가정예배의 중요성

비둘기 유치원 원아들에게 효율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서 가정과 연계된 신앙지도가 될 수 있는 부모역할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부모가 스스로 인도하고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라고 본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고 예배는 참여하면서 배운다고 파울러는 기독교 교육은 정보전달(Infomative)이 아니고 형성적인(Formation)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이 교리와 성경 내용의 가르침을 통하여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 예배와 성례 등에 참여를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가정 예배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족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며 회심하는 자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가져다 주시는 결과는 축복이라고 한다(de Jong 1997, 13).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한다(Foster 1986, 251).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며 교제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응답이며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곳이므로 그 자체가 살아 있는 교회의 한 단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역할을 하는 축소된 교회라고 하며(딘 1981, 17), 가정 예배는 신앙의 중심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사고 방식, 가치 체계, 자아 정체, 그리고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이 작은 교회이며 부모가 최초의 교사라는 명제가 통용된다면 가정예배는 가족 전체의 영혼 구원과 기독교 교육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예배는 신앙의 양육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신앙의 잉태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을 학문적 지식과 비교한다면 학문의 내용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여 최고의 학자를 만들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삶의 질과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배를 통하여 이기적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변화 중심의 교육으로,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믿으므로 예배는 교육과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다(박원호 1999, 253). 따라서 가정예배는 가정과 연계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 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배울 수 있도록 가족이 지켜야 할 예배시간과 예배의 참여(participation)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 예배의 원리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예배도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과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여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경내용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역사 등을 주제로 자녀들과 함께 토론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다루면서, 성의껏 대답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유익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예배를 기독교 교육의 도구로 이용하여, 지나치게 성경을 가르치고 암기하게 하는 교육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듯 유별나고 부담스럽게 드리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즐겁게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에버하르트 2012, 183), “언제 모이느냐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데 더욱 강조점을 둔다(네레모어 1982, 15). 하워드 G. 헨드릭스(Hendricks)도 시간에 대하여 “가정예배의 시간은 비공식적이어야 한다”(헨드릭스 1982, 101)고 말함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인 예배의 본질을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교육이 가정과 연계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 위하여 가정예배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가정예배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한다 즉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예배를 통하여 우상숭배의 무가치 함을 알게 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는 신앙의 전반적인 깊이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둘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김득룡 1983, 107). 이것은 가정예배가 가족간의 신앙 일치를 이루며 가정에서 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가족에게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므로 아버지는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조력자인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인도해야 한다(Martin 1976, 23). 하지만 기도와 토론의 진행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은 물론이며 향후 자기들의 가정을 예배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리차드렌츠(Richard E. Lentz)는 “가정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집합적으로 기억하는 가족 공동체의 대면”이라고 가정예배를 정의하였다(Lentz 1957, 280). 즉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며 들판이나 사업장, 선교지 혹은 입원가족이 있을 시에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성경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삶에 닥치는 어려움을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대처하는 법을 알게 해야 한다. 어린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 듣는 설교를 통해 성경 지식과 신앙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인도자가 성경 말씀을 일방적으로 설교하듯이 가르치기보다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서로 토론을 통해 밝혀 간다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며, 말씀의 내용을 익히게 될 것이며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 줄 것이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가정 예배는 하나님과 가족 전체의 응답 그리고 가족의 친교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며(Lentz 1957, 281), 가정 예배는 가족의 교제가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가족간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가정을 부탁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가정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전성수 2017, 165). 이와 같은 예배의 원리를 준수하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생활이 몸에 베여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줄 것으로 믿는다.

가정예배의 효과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우둔함이 치료될 수 있고 우리의 흐릿한 영적 시력이 교정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드러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한다(de Jong 1997, 10).

또한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영적 멘토가 되기를 자원하는 신앙적 결단이 동반되어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멘토로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와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정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며 중요한 효과로서 자녀들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며, 특히 기도의 훈련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 효율적인 기독교 교육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인간의 존재목적에 달성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신앙으로 가족이 결속되고 가족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로더(James Loder)는 인간행동의 가장 고귀한 표현의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다(Loder 1998, 169).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므로 자녀가 스스로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자신의 몸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가정예배의 열매를 알아야 한다. 가정예배는 자녀들에게 죄에 대한 고백과 죄 사함의 방법을 제공해 준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로 시작하여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므로 자녀들의 삶을 승리로 변화시켜 준다. 또한 가정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한다(Foster 1986, 273). 이상과 같이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원리를 충분히 알고 있어도 예배는 모두 성공한다고 할 수 없다. 성공적인 가정예배는 성경말씀을 읽고 모든 가족에게 적용 가능한 기도제목과 연관된 말씀을 제공하고 모두가 암기하고 암송을 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하는 법을 안내하는 것이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정 예배는 인도자가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예배이며 대화 없이 일방적인 설교 자녀를 징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예배를 중간에 포기하는 등이다(박순옥 2012, 126). 따라서 부모들은 예배시간에도 어린 자녀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수 있게 어린이 발달에 맞는 설교와 기도의 형식을 유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야 할 것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의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지도를 위하여 부모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2012, 126).

첫째, 가정예배는 그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다.

둘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다. 예수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더 우선적인 생각이나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참 예배가 될 수 없다.

셋째, 부모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자녀를 징계하는 시간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은 가지고 자녀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실패하는 예배가 된다.

넷째, 가정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룩한 기대로 믿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이 분명하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주고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가정 예배는 복음적인 가정으로 변화되는 축복과 어린이들의 효율적인 기독교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믿으며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어린이가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며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을 시켜야 할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12, 126-27).

요약 및 선교적 함의

한국사회의 어린이 기독교교육에 대한 상황적 관점을 살펴보면 비둘기 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현행 법과 제도권 아래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가 운영하는 비둘기 유치원은 물론이며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많은 유아 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1990년대에 약 일 만개가량 존립하였지만 국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밀려서 현재는 전국에 50개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어린이 선교원’을 다시 회복하여 설립하는 것이다. 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치원 인가서를 국가에 반납하고 ‘어린이 선교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어린이 선교원 설립 인가는 사단법인 ‘세계 어린이 선교원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 현행법과 제도권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교회학교 교육을 평일에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교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둘째 비둘기 유치원의 현황 분석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역할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설립한 선교원의 학부모를 통하여 선교원과 가정이 연계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제안한다.

부모의 역할은 성경적 교육관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대리권 자로서 부모역할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자로서 부모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린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부모는 자녀들과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람직한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달하여야 한다. 자녀와의 진솔한 의사소통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격이 없는 대화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재자로서 자녀의 신앙 발달을 도우게 될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열어 주게 하는 부모의 역할은 분명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필자는 다음세대 선교의 최전방은 어린이 선교라고 본다. 이것은 청소년 세대 보다 영. 유아의 세대가 더욱 시급한 세대라고 보며 ‘어린이 선교원’의 설립은 한국사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선교원에서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까지 병행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한국교회와 개인은 이 일을 위하여 솔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제 9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둘기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필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 비둘기 유치원에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기독교 교육의 정당한 근간을 찾기 위하여 성경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린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살펴본 후 현재 한국사회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제도적 현황과 비둘기 유치원에서의 어린이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둘기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연구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연구를 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요약

비둘기 유치원 현황 연구에서 비둘기유치원의 전신은 1983년에 울산시 반구동 동부교회내에 설립된 ‘울산동부 어린이 선교원’ 이었다. 이후 교회의 사정상 분리되어 1994년 울산 북구 호계동 현재의 위치에 ‘비둘기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둘기 유치원의 설립 목적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기독교 교육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교사 들도 기독교 교인 교사들을 채용하였으며 매주 어린이들에게 예배와 말씀교육을 하였다. 이러한 목적 교육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자 일반 유아 교육과정도 모범적으로 교육하여 지역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유아교육기관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따라 공교육기관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허락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와 학부모들의 특정종교에 대한 거부로 기독교 교육과정이 부재 중이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어린이 기독교교육의 성경적 관점은 구약에서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었으며, 부모는 교사의 역할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보상과 책임을 확실히 정의하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어린 영혼들에게 권능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려는 성스러운 계획이 있으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깨워야 할 영혼으로 보셨고 어린아이 한 영혼에서 다음세대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역사를 보신 것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다음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다음으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선교학적 관점은 어린이 기독교 신앙교육이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어린이에게 복음을 위한 신앙교육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으며 복음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나라 회복을 위한 선교의 필수과정으로서 선교와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은 어린이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 선교를 복음의 농사로 이해한다면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봄날에 옥토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며, 농사처럼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기독교교육은 선교의 수단이며, 제자도의 완성이며, 세계선교를 위하여 옥토 밭에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으로 선교의 최전방을 사수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은 1800년대 후반에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있던 조선땅에 서구 선교사들의 어려운 입국으로 시작되어 불안하고 암울한 곳에 복음의 서막을 열었다. 당시 서구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선교를 선교의 매개체로 사용하였으며, 오직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 부모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한국 초기 교육선교는 문맹을 퇴치시켰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몽차원의 교육 선교로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대화의 길로 개화되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다. 초기 한국 기독교 교육은 젊은 선교사들이 돌팔매질을 당하며 전하였던 복음을 위한 희생의 결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켰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굽히지 않는 영원한 신앙 유산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시작되어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경건주의를 강조하였으며, 네비우스 원칙을 적용한 선교적 방법으로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전(Self-Propagation), 헌금을 하여 자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 후원까지 하는 자립과 자치(Self-Support)까지 이루어 지게 하는 모범적 선교의 대표적 사례이며, 극히 성경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매우 불투명하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사회 헌법과 교육법 및 학생 인권조례 등을 통하여 특정종교의 교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현행 법령체제 및 제도권 하에서 기독교 공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을 실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목적하는 비둘기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도 사회적 한계와 제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기독교 교육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권의 영향력 외에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세대 교육이 많이 힘들어진 것은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산업화로 교회 교육의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현황과 함께 무엇보다 결혼인구 감소와 출생을 저하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기독교 교인의 수가 해마다 감소되며 교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음세대 교육기관의 부실이 파생되고 있다. 또한 가정적으로는 한국교회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보다 학교 교육에 대한 학구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 관계로 신앙지도에 대하여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모역할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어린이 전도의 불모지가 되어 가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타 문화권에 있는 선교 대상자가 되었고 비둘기 유치원은 사회적 한계와 현행 제도권 아래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가 운영하는 비둘기 유치원은 물론이며 한국 사회 기독교인 들이 운영하는 많은 유아 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1990년대에 약 일 만개가량 존립하였지만 2004년 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무상교육 즉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재정적 지원에 밀려서 현재는 거의 소멸해 버린 ‘어린이 선교원’을 다시 회복하여 설립하는 것이다. 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치원 인가서를 국가에 반납하고 ‘어린이 선교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방안으로 삼고자 한다. 어린이 선교원 설립 인가는 사단법인 ‘세계 어린이 선교원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 현행 교육법과 여러 가지 제도권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 선교원’을 문화 체육부에서 승인하는 기독교 종교기관 부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원’은 어린이 교회로 교회학교 교육을 평일에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교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최전방은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실천 지대라고 본다. 영. 유아의 시기는 선교학점 관점에서 봄날 옥토 밭에 파종하는 것과 같이 결실을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어린이 한 영혼에게서 수많은 영혼 구원을 볼 수 있게 때문이다. 또한 운영면에서도 2018년 ‘양육수당 법’과 2019년 ‘아동수당 법’의 실시로 정부의 인가 기관인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대한 민국 영, 유아들이 모두 수급대상자가 되므로 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선교원’의 설립은 한국사회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선교원에서 어린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교육까지 병행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다음세대 교육은 물론이며, 현 세대에서 교회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와 개인은 이 일을 위하여 솔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전국의 교회에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 ‘어린이 선교원’의 설립방법과 규정에 대하여 인지시키고 권면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둘기 유치원의 현황 분석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설립한 선교원의 학부모를 통하여 선교원과 가정이 연계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제안한다. 선교원 어린이들의 학부모 교육은 부모역할 교육으로서 성경적 교육관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부모역할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자로서 부모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역할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부모의 큰 사명인 동시에 자녀와 함께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특권인 것을 알게 한다. 이것은 부모들을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복음전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 선교원’ 학부모를 통한 가정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들이 어린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영, 유아의 발달상의 특징적인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지식이 될 수 있으며, 영, 유아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교육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자녀가 하나님 주권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신앙적 양육은 하나님의 절대명령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의 예배인 것을 인지하게 하여 태아기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즉 발달에 적합한 신앙교육을 안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대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화법을 제안한다. 항상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부모의 언어적 생활이 자녀에게 모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부모들이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게 가정예배를 통한 어린이기독교 교육을 제안한다. 한국사회 각 가정은 일주에 한번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군데 학원을 다녀야 하며,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터로 나가야 하고, 맞벌이 부부는 주말에도 함께 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에서는 부모교육의 주제로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밥상머리 교육’ 보다 ‘가정예배를 통한 가정교육’을 제안한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부모의 역할은 분명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마치며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일주일에 한 시간 즉 주일날 하루 한 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한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어린이 전문 기독교 교육 기관의 설립을 제안하며, 평일에도 어린이 교회학교가 연장되어 기독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솔선 수범하여 복음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바란다.

제언

필자는 비틀기 유치원 어린이들의 기독교 교육의 방안으로 부모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연계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제안하지만 연구범위의 제한이 있으므로 많은 실제적 방법을 제안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실제적인 부모상담 또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것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부모역할에 시행 착오가 있을 경우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공동체 부모교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은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의식 변화와 가정 연계 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자의 의도에 따라 교수방법과 내용이 결정되며 프로그램의 형식도 교육 수혜자가 조절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므로, 부모들은 양육의 실제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부모들의 내면적인 상처와 고통을 도와주기에는 부모교육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교육’과 ‘기독교 부모상담’의 상호 보완에 관련된 논의가 절대적으로 요구 되어진다고 본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성경적 원리를 적용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올바른 개념형성을 위한 교육과 가정이 참된 신앙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성경적 부모상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성장과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다. 교회시설은 더욱 화려 해지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악기는 다양해지고 미디어 기기는 최신 기기로 변모하였고 사역자들의 실력과 학력은 최고 수준을 갖추고, 교회 프로그램 넘치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교인들의 심령은 더욱 메말라가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교회로 오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교회 사역자와 지도자들이 다음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성인 중심의 사역을 해 온 잘못된 과오가 빚어 낸 결과로 본다.

어린이 기독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교회성장을 위하여 또한 성경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줄 믿는다.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초기의 주일학교 운동과 교회부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장년 중심의 사역을 종식시키고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앙공동체는 가정을 지원하고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부록1

어린이 선교 사명 선언문

1.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어린이 선교 사명에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건다.
2. 우리는 부모가 자신에게 맡겨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함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양육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로 양육함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4. 우리는 자녀를 자손 대대로 믿음의 자녀로 말씀 전수함의 최고의 교육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함께 함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5. 교회는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영적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6.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 어린이 선교의 터전인 말씀의 집(가정 선교원, 교회 말씀의 집, 어린이 선교원,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을 세워 사역한다.
7.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자가 된다.
8. 우리는 어린이 선교를 통해 자녀를 올바른 교육을 통해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며, 부르심을 따라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리더로 양육함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부록2

세계 어린이 선교회 총회 수칙 준수 서약서

1. 총회 가입 선교원 및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이하 “CBA”라 칭함)는 총회가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유아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제작된 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총회에서 회원용으로 제작된 예수님의 어린이(1단계, 2단계, 3단계)를 포함하는 모든 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는 총회가 제공하는 행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
총회비 납부, 지역별 정기 연합회 참석, 지역별 연합 행사 참석 등
3.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는 총회의 선교 활동 계획에 준하여 운영해야 한다.
4.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는 총회가 실시하는 원장 교육 및 정기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국 원장 세미나(매년 12월 25일 성탄절이 지난 월요일~금요일내에 1박 2일로 한다.) 지역별 정기 연합회 모임
5.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는 총회가 실시하는 교사 교육에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매년 실시되는 교사 정기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국 원장 세미나(7월 마지막 주 월요일~화요일), 지역별 정기 연합회 모임
6.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는 총회의 설립 등록 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

7.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는 총회의 모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8.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는 총회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9. 총회는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가 설립한 후 운영이 부실하거나 이행 준수 여부가 불성실한 경우 총회 가입 선교원 및 CBA에게 권고, 징계, 제명(탈퇴) 처리할 수 있다.

세계 어린이 선교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함)에 가입을 원하는 어린이 선교원(이하 선교원) 및 CBA 관계자(원장)는 본 수칙에 대하여 총회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 사항을 준수할 것에 대해 서약한 이후 유사 기관 설립 및 병행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어린이” 교재를 무단 복제 또는 부분 복사, 유사 제품의 제작, 판매, 대여 또는 본 총회의 허락 없이 무단 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총회 회원 자격은 사단법인 기독교 어린이 선교원 또는 CBA로서 본 총회에 가입하여 선교원 및 CBA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본 총회의 수칙을 성실히 준행하는 자로 제한한다.

이상의 모든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록3

어린이 선교 현장

우리는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장래 간성이 될 어린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며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우애와 주의 몸 된 교회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며 모든 성경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꾼을 길러내야 함이라.

부록4

어린이 목회자 강령

- (1)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어린이를 선교하는 목회자이다.
- (2) 나는 나라와 민족과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자이다
- (3)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사역자이다.
- (4) 나는 교회의 율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종이다.
- (5) 나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매는 종이다.
- (6) 나는 주님의 말씀의 씨를 어린 심령 밭에 뿌리는 농부이다.
- (7)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부록5

사단법인 세계 어린이 선교회 부설 대한 기독교 어린이 교회(정관)

본회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3동 861-2호에 둔다.

목적

인천 및 전국 각 지역에 어린이교회 및 어린이 선교원을 설치운영과 어린이 전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어린이 선교 신학을 설립 운영하여 어린이를 복음화 시키기 위함이다.

사업

1. 본회는 전조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어린이 선교사업
- 2) 기독교 인격 형성을 위한 어린이 기독교 교육사업
- 3) 기독교 사회화를 위한 자모 종교 교육사업
- 4) 어린이교회 설립을 위한 선교원 설립 추진사업
- 5) 기독교 어린이 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선교신학 설립운영사업
- 6) 제3세계 어린이 복지 선교를 위한 어린이 세계선교사 파송사업

2. 본회는 전항의 사업보조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어린이 선교원 연합을 위한 단체 교육사업
- 2) 복음적 어린이 교육을 위한 출판 및 출판물 보급사업
- 3) 부대 수입사업

1. 어린이복음화를 위한 어린이 선교원 및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CBA)
설립지원

2. 어린이선교 및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CBA) 전문지도자 양성
3. 기독교적 전인격 형성을 위한 어린이 신앙교재 개발 및 출판
4. 제3세계를 위한 어린이 전문선교사 파송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강준민. 2010. *달란트와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 고용수. 1992. *현대기독교 교육의 선구자 호레이스 부취벨*. 서울: 기독교교육.
- 김남철. 1997. *유대인의 신앙교육*. 서울: 도서출판 국제문화.
- 김득룡. 1983. *현대 예배학신강*.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김영재. 1992. *한국교회사*. 협신 대학원 출판사.
- 김인환. 2011.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서울: 두란노.
- _____. 2016. *평신도, 교회를 세우다(평신도 중심으로 본 한국 기독교사)*. 서울: 밥북.
- 김태원. 1992. *기독교 교육사*. 부산: 육일문화사.
- 김폴린. 1999. *한국기독교교육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 리강무. 1980. *어린이 선교학*. 서울: 한국 어린이 선교 신학교 출판부.
- _____. 1984. *기독교 교육학*. 서울: 한국 어린이 선교원 총회 출판부.
- 박영호. 2015. *어린이 교육과 전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용규. 2004. *한국기독교 교회사1*. 서울: 한국기독교사 연구소.
- 박원호. 1999. *신앙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부.
- 박재환과 임재택. 2001. *유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백락준. 1970. *한국개신교회사 1832-1910(영문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병렬. 2018.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병은. 2016. *성경: 기독교 교육의 교과과정*.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 이상욱. 2009. *21세기 기독교 전인 유아교육*. 서울: (주)교문사.
- 이영석. 2004. *유아교육론*. 서울: 형설 출판사.

- 임창복. 2002.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 장화선. 2002. *새시대 기독교 교육학의 방향과 과제(어린이 신앙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 장원철. 2014. *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 장혜순 외. 2011. *아동 수 과학지도*. 서울: 형설 출판사.
- 전성수. 2017.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서울: 두란노.
- 전효진. 2001. *전도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 정갑순. 2005. *영아 부 교육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 정정숙. 1997. *기독교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 _____. 2006.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 정희영. 2007. *기독교 부모 교육의 실제*. 서울: 창지사.
- 최윤식과 최현식. 2017.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한규원. 1981. *구한말 기독교학교의 성립과 공헌*. 우석대학교논문집,(135-153)
- 한원섭. 2010. *어린이 선교 총론*. 세계어린이 선교회.
- 고든 웬함. 2013. *모세오경(The Pentateuch)*. 박대영 역.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 레이먼드 브라운. 1997. *신명기 강해(The Message of Deuteronomy)*.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단 맥카트니과 찰스 클레이튼. 2000. *성격 해석학*. 김동수 역. 서울: 기독교학생회출판부.
- 머리뎃 G. 클라인. 1994. *언약 성경 권위의 구조(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노춘희 역. 서울: 새순출판사.
- 어디스 딘. 1981. *성서적 가정관*. 도한호 역. 서울: 요단 출판사.
- 지쓰코 스세딕. 1994. *태아는 천재다*. 김선영 역. 서울: 샘터.
- 클라이드 M. 네레모어. 1982. *가족예배는 이렇게*. 백인숙 역. 서울: 나침반사.
- 트렘퍼 롱맨 III. 1999.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읽기(Reading the Bible with Heart and Mind)*. 네비게이트 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부.
- 하워드 G. 헨드릭스. 1982. *우리 집은 천국*.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 사.

- Adams, Jay E. 1997. *Christian Living in the Hom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Aleshire, D. 1988. *Faithcar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Brueggemann, Walter. 1998. *창조적인 말씀을 통한 기독교 교육(The Creative Word Canon as model for Biblical Education)*. 강성열과 김도일 공역. 서울: 한들.
- Christoph, Johann. 2008. *부모가 학교다*. 전의우 역. 서울: 달팽이출판사.
- Comenius, Johann Amos. 1970. *Grosse Didaktik*. Andreas Flitner: Verlag Helmut Kupper Vormals Georg Bondi.
- de Jong, James. 1997. *개혁주의 예배*. 황규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Eunsuk, Hyun. 1998. *Making Sense of Developmentally and Culturally Appropriate Practice in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Pete Lang Publishing.
- Fee, Goden D. and Douglas Stuart. 2009.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과 박대영 공역. 서울: 성서 유니온 선교회.
- Foster, Richard J. 1986.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과 황응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Fowler, J. W. 1987. *신앙의 발달 단계*. 사미자 역.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 _____. 1996.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박봉수 역. 서울 장로교 출판사.
- Gordon, Miles. & Kathryn Williams Brown. 2004. *Beginning & Beyond Found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alifornia: Thomson Delmar Learning.
- Grant, Reg. and John Reed. 1990. *Telling stories to Touch the Heart: How to Use stories to Communicate God's Truth*. Wheaton, Ill.: Victor Books.
- Harper, Norman E. 1981. *Making Disciples*. Memphis, TN: Christin Studies Center.
- Henley, Karyn. 1997. *Child-Sensitive Teaching; Helping Children Grow a living faith in loving God*. Standard Publishing, Cincinnati, Ohio.
- Kobe, Steven. 1994.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경섭, 김원석 역. 서울: 김영사.
- Lentz, Richard E. 1957. *Christian Worship by Families*. St. Louis: Bethany.
- Lorder, James. 1998. *The Logic of the Spirit*. San Francisco: Jossey-Bass.
- Martin, Dorothy. 1976. *Creative Family Worship*. Chicago: Moody Press.
- Moran, Gabriel. 1988. *종교교육 발달*. 사미자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 Nelson, C. E. 1971. *Where Faith Begin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Pazmino, Robert. 1988. *The Basics of Teaching for Christians: Preparation, Instruction, Evaluation*. Grand Rapids: Baker.
- Platte, Eberhard. 2012. *거룩한 부담 자녀양육*. 강미경 역. 서울: 아가페 북스.
- Tomas, Gary L. 2015. *SACRED PARENTING*.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CUP.
- Werner, Hazen G. 1965. *The Bible and the Family*. Nashville: Abingdon Press.
- White, William R. *Stories for Telling: A Treasury for Christian Storytellers*.
- Wilds, Elmer Harrison. 1942. *The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New York: Rinehard & Company, Inc.
- 강은숙. 2007.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위한 기독교 부모 교육의 모형 개발.” 안양 대학교 신학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선민. 2016. “한국 초기의 교육선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박동진. 2003. “교회학교 인적 현황으로 본 교회학교의 성장 추이.” 장로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병두. 2010.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 고찰과 활성화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대학원.
- 이주영. 2005.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과 부모의 역할의 연구.” 한일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학위논문.
- 강대홍 목사 성경사랑. 2018. “남도의 백합화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1891-1950.” 2018.06.04., 2018.08.12. blog.naver.com/bnn12m/221291607148
-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리스도인 췌이영. 2018. “주일학교 운동.” 2018.03.13., 2018.06.26. blog.daum.net/ihrskm/8036498
- 자은동부성결교회. 2016.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후예들.” 2016.02.21., 2018.03.31. blog.daum.net/jndong/16595731
- 코이네로 말하라. 2017. “우리나라 해방 이전의 교회학교.” 2017.09.13., 2018.11.23. koinespirit.tistory.com/616
- 아이굿뉴스. 2010. “영유아 위해 헌신한 ‘푸른 눈의 천사’ 번스 선교사.” 2010.07.14., 2018.11.13. 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422
- 세계선교공동체. 2018. 2018.11.13. www.wmc.or.kr
- 평양대부흥. 2008. “연동교회 주일학교 100년사.” 2008.05.06., 2018.08.31. www.1907reviv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7

- 기독신문. 2012. “문소재에서-아동성경구락부.” 2012.01.31., 2018.11.05.
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13
- 구세군 위기상담 센터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대해” 2018.11.22., 2018. 12. 15
<http://blog.naver.com/hopeline939/221403790460>
- 뇌발달부모교육. 2018. “신비로운 태아의 탄생-태교의 중요성.” 2018.09.21., 2019.01.10.
blog.naver.com/amazing365/221363546958
- 보건 복지부. 2018. “훈령/예규/고시/지침.” 2018.10.29., 2019.01.25.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43415&page=1
-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 나라답게-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17.05.12., 2019.01.30. http://theminjoo.kr/policyReferenceDetail.do?bd_seq=70118

약력(VITA)

필자 박순옥(朴順玉, SunOryk Pak)은 한국 부산시 영도구에서 아버지 박말갑과 어머니 김중생의 7자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제일 영도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며 성장했다. 1979년 5월8일 남편 김일태(金日泰)와 결혼하여 아들 김도희를 낳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왔다.

1983년 한국 울산 동부 교회에서 ‘어린이 선교원’을 설립하여 운영 하였으며 1988년 8월 30일 교회에서 분리되어 관인 ‘비둘기 유치원’을 설립하여 2019년 현재까지 설립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부산 경성대학에서 신학을 정공하고, 인재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석사학위 공부를 마치고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경성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자녀의 신앙 발달을 위한 부모상담 역할 연구’ 논문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2016년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D.Min)을 졸업했다.

2019년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울산 비둘기 유치원을 중심으로’(A Study On Christian Faith Education For Christian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dulgi Kindergarten Of Ulsan, Korea) 라는 주제로 연구하여 선교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필자는 유치원을 경영 하면서 경성대학교 신학과 외래교수와 양산대학 겸임교수 그리고 영남 신학대학교 등에서 유아교육과 기독교 교육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였다. 전공과 임상 경험이 많은 필자는 어린이 교육과 기독교 신앙의 접목으로 흡족한 기독교 교육의 강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2012년 한국기독교 신학 대학원 협의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언양 열방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마치고 2019년 현재 북울산 순복음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국의 통합측 교단 대구노회와 안동노회가 주최하는 교회 사역자들 세미나에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 강의를 하였으며, 교회에 초청강사로 ‘성경적 자녀 교육’ 특강도 하였고, 한국

기독교 방송 CBS방송에서 라디오와 T.V.에 6개월 동안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하여 토크와 칼럼, 설교방송을 하였다.

필자는 본인이 전공하고 사역한 현장성과 학문적 접근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세대 기독교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 시키고 한국교회와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한 영적 교육을 위하여 쓰임 받고, 나아가 세계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